

Sulwhasoo

VOL.94 WINTER 2020

Sulwhasoo

VOL.94

Sulwhasoo

WINTER 2020





From the Glitter 2014-13 / 강명선
나무, 자개, 옷칠 소거죽 / 256x115x101cm / 2014

이토록 대담하고 생명력 넘치는 자개라니! 대개 십장생이나 산수 풍경 등 자개가 펼쳐낸 문양에 집중하게 되는데 강명선 작가의 작품은 자개 자체의 본질적인 생명력과 역동성에 감탄하고 만다. 일반적으로 보아오던 자개 작품과는 확연히 다르게 현대적이고, 초현실적인 미래의 가구를 보는 듯하다. 풍부한 색감과 유려한 곡선은 자개 재료와 기술, 실용성과 조화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에서 탄생했다. 평면적인 전통 자개의 한계를 딛고자 물결치는 3차원의 유기적 형태로 구현하고, 곡선을 살리기 위해 자개를 종이처럼 얇게 깎아야만 했다. 그럴수록 선은 부드러워지고 광채는 영롱해졌다. 아트 퍼니처로서 일상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길 바라며 실용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등받이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고 좌판은 스펀지를 넣은 가죽으로 마무리해 편안하다. 빛으로부터 시작된 강명선 작가의 자개는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따스하게 마음을 감싸주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펼쳐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갤러리서미, 박명래

What a bold and shining mother-of-pearl! Most mother-of-pearl patterns draw the attention toward the 10 Symbols of Longevity or the landscapes of mountains and waters. Artist Kang Myungsun's work, however, allows you to be engaged with the essential vitality and dynamics of the mother-of-pearl itself. I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usual mother-of-pearl furniture in that it seems as if it has come from the future. The rich colors and the beautiful curves are the fruitful result of her struggles to find the perfect balance among the mother-of-pearl, technology, and practicality. In order to create the 3D organic shapes that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2D mother-of-pearl, she had to carve the mother-of-pearl as thin as paper for the curves. The lines have become softer and the luster has become more radiant as well. Neither did she miss out the practicality of her work, hoping that her art furniture can be used beautifully and practically in everyday life. The backrests are ergonomically designed and the seats are comfortable with the leather finish over sponge. Kang's mother-of-pearl from light is glamorous, yet not extravagant, and it presents a colorful spectrum that warmly embraces your heart.

단단한 기본으로 만들어낸 피부 자신감
에센셜 라인

Essential Line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단계별로 영양과 생기를 부여하는 에센셜 라인은 얼굴에 본이 다른 아름다움을 꽃피웁니다.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factors
The Essential Line nourishes and revitalizes the skin step-by-step
to enhance your beauty beyond your expectations.



Sulwhasoo

WINTER 2020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의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리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아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20,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Mainland China, Singapore, Hong Kong(China),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Sulwhasoo

VOL.94 WINTER 2020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맑은 안색으로 밝히는 진정한 아름다움
- 12
피부 섬기기
격조 높은 피부를 위한 경이로운 생명력
- 16
新 장인을 만나다
고단한 시간을 즐겨 얻은 아름다움
- 22
공간미감
한국 안 스위스, 정체성을 사유하는 건축
- 28
건너다
조화와 화합의 지혜가 펼쳐지다

발행일·2020년 1월 2일(통권 제94호)
발행인·안세홍 편집인·강병영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이응주, 이슬, 전해미)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디자인·가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박홍성 디자인·이명보
사진·GURU visual 02)747-6123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삶에 음악을 선물하는 음악 전달자
- 44
어우러지다
온기가 머무르는 너그러운 겨울
- 50
설화풍경
눈부시게 쏟아지는 찬란한 희망
- 54
설화보감
만두꽃이 피었습니다
- 60
아름다운 기행
천년 고도에서 본 시간의 무늬
- 66
설화수를 말하다
꽃과 나비, 새가 부르는 봄의 찬가
- 72
설화공간
정성스러운 설화수 헤리티지로
채우는 피부 에너지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상서로운 꽃 지수로 전하는 새해 문안
- 82
한국의 멋
은은하고 고결하게 밝힌 빛
- 84
설화애장
개념과 구축을 연결하는 업
- 86
읽다
사공간에 새겨 넣은, 미래라는 기억
- 90
집 안 단장
식탁 위에 피어난 은은한 정원
- 92
몸 단장
작지만 위대한 예술 한 점



- 94
프로덕트맵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맑은 안색으로 밝히는 진정한 아름다움 True Beauty Brightened with a Radiant Complexion

피부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강의 창이다. 오래전부터 일상의 안부를 얼굴빛으로 확인하고, 화사하고 건강한 혈색의 피부와 맑은 눈가를 중요하게 여긴 연유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얼굴 좋아졌네요”, “얼굴이 환합니다” 혹은 “얼굴이 창백해요”, “눈 밑이 어둡네요”라며 얼굴색을 언급하며 인사를 건넬 때가 있다. 으레 하는 말이 아니라 예로부터 얼굴에 깃든 건강한 혈색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인상이 그 피부에 드러난 색으로 결정된다고 했다. 피부색이 건강 상태의 지표였던 것이다.

〈동의보감〉을 보면 “색은 신神의 깃발이고 오장은 신神의 집이다.”라고 한다. 또한 얼굴색으로 신체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피부로 드러나는 색깔은 간, 심, 비, 폐, 신 즉 오장의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얼굴이 검푸른 사람은 간이 좋지 않다. 창백한 얼굴은 폐를 살펴봐야 한다. 얼굴 빛이 누런 사람은 소화기관이 약하다.

맑게 빛나는 낮빛은 건강을 확인해주는 것은 물론 아름다움의 척도였기에 여인들은 피부색을 관리하기 위해 지혜로운 비책들을 동원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미인 황진이이는 인삼 잎을 달인 물을 차로 마시고, 세안과 목욕을 해 맑고 고운 피부로 가꿨다고 한다. 〈본초강목〉에서는 ‘구릿대’ 뿌리인 백지가 안색을 윤택하게 살리고, 미백과 기미 제거에 탁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Some people often comment about the complexion of others while greeting them. They would say, “You look bright”, or “You have dark circles under your eyes.” This is not just their usual greeting, but instead, it is their way of saying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you because a healthy complexion has always been considered as very important since the ancient time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t is believed that a person’s first impression is determined by his or her complexion. The skin tone is used as an indicator to measure one’s health condition.

Not only has a clearly radiant complexion been a sign of healthy condition but it also was used as women’s beauty indicator measuring how beautiful they were. As a result, many women adopted various wise tips to take care of their complexion. Hwang Jini, a representative beauty figure of Korea’s past Joseon Dynasty, drank tea made with ginseng leaves, and also used it to cleanse and bathe to maintain clear and fine complexion. <Bencao gangmu> mentions that ‘Dahurian angelica’ roots refine the complexion as they are effective for brightening the skin as well as removing freckles. It is widely known that Yang Guifei, China’s famous beauty, also used the roots for brightly white skin.



대리석과 핑크 레진이 어우러진 사각 트레이 'Fragment series'는 픽트스튜디오 은은한 베이지 컬러의 원형 볼은 뷰로 파피에 손잡이가 있는 속우는 윤세호 작가 by AREA+. 민트색 미니 볼은 뷰로 파피에

천하일색인 양귀비도 하얗고 뽀얀 피부를 위해 백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가정백과 <규합총서>에서는 ‘희고 옥 같은 피부’가 미인의 조건이라고 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다. 피부를 희게 만들기 위해 물에 갠 분을 얼굴에 발랐다가 물로 씻어 내는 분세수粉洗手를 했다거나 선달에 내린 눈을 녹여 독에 담아두었다가 봄에 피는 복사꽃을 짓이겨 넣어 만든 납설홍수臘雪紅水는 상류층 집안 여성들이 피부를 밝히는 데 사용한 고급 물비누였다고 기록한다. 조선 21대 왕 영조의 딸 ‘화협옹주’의 묘에서 다양한 화장 관련 부장품이 발견되었는데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 화장 용기에는 지금의 크림에 해당하는 면약面藥 등의 성분도 검출되었다. 이는 얼굴색을 맑게 밝히는 재료인 좁쌀물의 옷물, 복숭아꽃, 동아씨 등을 꿀과 섞어 사용한 면약으로 밝혀져 궁궐의 여인들이 안색을 밝히는 데에 사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건강한 혈색과 아름다운 인상을 위해서 눈 밑 색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눈 밑이 검고 어두우면 피곤해 보이고, 실제 몸 안의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을 때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눈은 오장육부의 정기가 모이는 곳으로, 눈과 눈가 피부를 맑게 하는 지압법을 소개한다. “손바닥을 열어 나게 비빈 후 두 눈을 14번 문지르면 눈의 예장이 없어진다.”고 했다.

설화수 또한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로 피부 피로를 풀어주는 설린 라인에 맑은 안색을 가꾸기 위한 지혜를 담았다.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설린아이크림을 새롭게 선보여 환한 눈가로 바꾸어주는 생기 탄력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이 마사지가 함께 구성되어 눈가의 혈액순환을 돕는 지압점을 효과적으로 눌러주고,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S

<Gyuhap Chongseo>, a family encyclopedia for the elite class noble families in the Joseon Dynasty, states that ‘white, jade-like skin’ is the requisite condition for a beauty; and it introduces various ways to fulfill the requirement. The methods involve mixing skin whitening powder to apply it as a wash-off mask and keeping melted snow from the last month of the lunar year with the peach blossoms in the spring to use as a cleansing soap. Various makeup-related burial goods were found in the tomb of Princess Hwahyeop, the daughter of the 21st King Yeongjo of Joseon Dynasty; including today’s cream-like substance which was discovered in a porcelain container with colorful patterns. It was revealed that the cream was made by mixing the millet-cleansed-water; peach blossoms, and Benincasa hispida seeds with honey to brighten the face complexion, indicating that the palace women were deeply interested in having a bright complexion. It is important to check on the delicate skin area around the eyes for that healthy complexion and beautiful first impression. Dark circles under the eyes, according to <Donguibogam>, may make you look tired. <Donguibogam> says that the eyes are where the energy of the internal organs come together and thus it is important to do special massages around the area in order to brighten the eyes and around eye areas. The book recommends to “rub your hands together to generate heat and rub both eyes 14 times in order to remove the blurriness of the eyes.” With the start of 2020, Sulwhasoo has also recently launched the Bloomstay Vitalizing Eye Cream whose plum blossom ingredients offer antioxidant energy and relieve skin fatigue, while the porcelain eye massager effectively massages around the eyes, enhancing the blood circulation and therefore giving immediate cooling effect.

설린아이크림

눈 속에서 피어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의 강인한 항산화 에너지가 눈가 피부를 보호하는 생기 탄력 아이 젤 크림. 눈가 피부 피로에 의한 다크서클과 노화의 징후를 케어해 환한 눈가로 바꾸어주고, 스트레스 등의 외부 유해요인으로부터 눈가 피부를 보호한다. 진정 효과가 뛰어난 상심자 성분은 눈가 피부에 맑은 생기를 부여하고 함께 구성된 자막 아이 마사지와 함께 사용하면 눈가 피부의 미세순환을 도와준다. 20ml 10만원



대리석과 핑크 레진이 어우러진 시각 트레이 'Fragment series'는 픽트스튜디오. 원형 대리석 오브제는 르마블.

격조 높은 피부를 위한 경이로운 생명력

Astonishing Energy and Vitality for a Beautiful and Elegant Skin

새해를 시작하며 설화수의 한방 정수가 담긴 진설명작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귀한 원료들을 통해 진정한 명품을 경험하는 토틸 안티에이징은 고귀한 감동을 선사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붉은 옷칠을 한 듯 매끈한 광택과 영험한 기운이 감도는 멋스러운 모양의 영지버섯은 현대의 불로초로 불릴 만큼 약용 효과가 뛰어나다. 생물 분류도 불로초속, 불로초과에 속하니 중국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생의 약초가 바로 영지버섯인 듯싶다.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의 상징인 십장생에 포함된 귀한 영지버섯이 설화수를 만나 더욱 귀중하고 특별한 원료로 거듭났다. 높은 품질의 원료에 대한 설화수의 집념과 하이테크 그린 추출 기술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얻은 영지버섯 추출물은 진설명작 라인에 담겨 송고한 생명력을 피워낸다.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구조가 차곡차곡 쌓여 건강한 피부 상태로 유지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 이렇게 층층이 견고하게 강화된 피부는 나이와 외부 환경, 스트레스 등의 유해 요인에도 무너지지 않고 시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간직한다.

As can be found from the “10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reishi mushroom has long been a symbol of good health and longevity. At Sulwhasoo, however, it has become a one-of-a-kind raw cosmetic ingredient. Sulwhasoo’s commitment and aspiration for using only the highest quality ingredients prompted the brand to use strictly top-quality ingredients. It uses the essence of reishi mushroom, carefully extracted by using high-tech “green” extraction technology, is then filled into the Timetreasure Honorstige product line to deliver the powerful energy and vitality.

The Timetreasure Honorstige line also features Korean ginseng, Sulwhasoo’s fundamental ingredient, from which Sulwhasoo has finally succeeded to extract Active Ginseng Cell™ after more than 50 years of research. The 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urrounding ginseng at Sulwhasoo has made it possible to process ginseng cells at a molecular level and extract the source of their vital energy. This energy is then captured within each Active Ginseng Cell™ to help maximize the anti-aging benefits of ginseng. In addition to ginseng, the Timetreasure Honorstige line uses powerful anti-aging components extracted from the red pine. DAA and RPPC are two of the most effective anti-aging components used in Sulwhasoo’s Timetreasure line. Derived from the red pine leaves, DAA eliminates waste materi-

진설명작크림

고귀한 영지버섯과 액티브인삼셀™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가 피부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일깨우는 프레스티지 안티에이징 크림. 단단한 고농축 텍스처지만 피부에 닿자마자 부드럽게 녹아들며 피부에 밀착된다. 피부에 드러나는 노화의 흔적들을 케어하여 팽팽하고 탄탄하게 올려붙여 힘 있고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60ml 80만원



가죽을 이어 붙여 나뭇결을 표현하고 옷칠한 오브제 작업은 김준수 작가.



가죽을 이어 붙여 나뭇결을 표현하고 옷칠한
오브제 작업은 김준수 작가.

진설명작에센스

고귀한 영지버섯과 액티브인삼셀™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가 절정의
피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프레스티지
안티에이징 에센스.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농밀하게 발리고, 흡수 후 부드러운
보습막만 남는 반전 있는 사용감을
선사한다. 노화의 흔적들을 강력하게 케어해
피부 결을 매끈하게 정돈하고, 투명하게
빛나며 활력 넘치는 젊은 피부를 선사한다.
40ml 80만원

진설명작 라인에는 설화수 50년 헤리티지 원료인 인삼이 액티브인삼셀™로 더욱 특별하게 담겼다. 꾸준히 이어온 설화수 인삼 과학의 진화는 인삼 세포에 접근해 그 생명력을 오롯이 뽑아내는 수준에 이르러 액티브인삼셀™을 통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 성분은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를 보강해 피부를 단단하게 지지하고 탁월한 탄력을 부여하는 설화수 인삼 연구의 역작이라 할 수 있다.

진설의 핵심 성분인 적송에서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인 'DAA'와 'RPPC'를 추출해 천년의 강한 생명력을 진설명작 라인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적송 앞에서 추출한 'DAA'는 피부 나이테라 불리는 세포 노화 노폐물을 제거해 피부 수명을 연장하고, 적송 껍질인 수피에서 얻은 'RPPC'는 노화된 피부 세포를 재활해 젊고 건강한 단백질로 피부 속을 채워준다.

영지버섯과 인삼, 적송 등의 고귀한 한방 원료들로 피부의 힘을 끌어올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장벽 손상을 방어해주는 새로운 원료, S-파이토알렉신이 정서적 노화까지 케어하는 진설명작 라인은 진설명작에센스와 진설명작크림으로 구성되어 우월한 안티에이징을 선사한다. 피부를 공격하는 안팎의 다양한 요인에 굴하지 않고 젊은 피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주는 진설명작 라인은 피부를 섬기는 귀한 정성과 과학이 이뤄낸 설화수의 명품 중 명품이다. S

leaves, DAA eliminates waste materials inside the cells produced as we age and extends the overall lifespan of the skin. RPPC is a component sourced from the red pine bark that rejuvenates aged skin cells and fills these cells with fresh and healthy proteins. The Timetreasure Honorstige line uses precious traditional ingredients, such as reishi mushroom, ginseng, and red pine. In order to take care of the more intangible aspects of skincare, it uses a new component called S-Phytoalexin, which protects the skin barrier from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inevitable aging process. The Timetreasure Honorstige line combines all of these ingredients in the Timetreasure Honorstige Serum and Timetreasure Honorstige Cream to deliver the ultimate anti-aging experience.

진설명작크림
사용법
How to Use
Timetreasure
Honorstige Cream

Step 1

내장된 스페큘러에 1회
사용량을 덜어 볼. 이마, 코,
턱 손으로 고르게 나눈다.
Glide the spatula across
the cream to scoop up
an appropriate amount,
then apply about the same
amount of the product
across your face from the
cheeks, forehead, nose
and down to the chin.

Step 2

한 손으로 턱과 볼을 귀
앞까지 당겨준 뒤 나머지
손으로 턱과 볼 부위를
문지르며 발라준다.
Use one hand to lift up
your chin and cheek on
one side toward your ear
while using the other hand
to massage the formula
into the same chin and
cheek.

Step 3

눈가 주변을 이마 양
옆(함명)의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 당겨준 뒤 나머지
손으로 눈가와 코, 이마
부위를 문지르며 발라준다.
Use one hand to pull the
outer skin around an eye
towards the closer temple
area, while using the
other hand to massage
the formula into the area
of your eye area, nose,
and forehead. Repeat the
same for the other eye.

Step 4

미간에서 중앙 헤어 라인까지
당기고, 나머지 손으로
이마와 페이스 라인을
문지르며 발라준다.
Pull your skin from your
glabella towards the
center of your hairline,
then use your other hand
to massage your forehead
and facial lines.

Step 5

목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목 옆의 쇄골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마무리한다.
Lift up your chin, then
gently massage your
skin with a sweeping
downward motion to
finish your beauty ritual.



고단한 시간 즐겨 얻은 아름다움

Kang Myung Sun

강명선 가구 작가

작품은 화려하지만 작가는 소박한 그 상반된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지켜보는 일은 즐겁다.
 그의 성실한 손을 거치면 바다에서 끌어올린 조개껍데기는 소파가 되고, 의자가 되고,
 때론 태양 대신 빛을 내는 조명이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작업이 다시 즐거워졌다는 그를 만나보았다.

글 최태원 사진 한수정, 갤러리서미, 박명래

표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 작업의 특성이 드러난 소파입니다. 형태적으로는 매스(Mass)의 부피감을 강조하고, 자개의 색감을 극대화시킨 작업이죠. 너무 화려해서 자칫 가구로서의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좌판 부분에 스펀지를 넣고 가죽으로 마무리해서 착좌감을 높였어요. 등받이 부분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남성적 형태와 여성적 색감의 조합은 의도된 것인가요? 제 작업물에서 남성성을 발견하셨다면 그건 아무래도 제가 선호하는 유기적 형태의 볼륨감 때문일 겁니다. 대량생산되는 일반 가구와 달리 아트 퍼니처는 얇은 다리나 등판과 좌판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매스에 화이트 톤의 자개가 매칭되어 음양의 대비가 도드라진 것이겠지만,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유독 유기적 형태에 몰입하게 된 것은 자개를 주된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한 대학원 시절, 전통 자개 작업물이 평면에 제한돼 있다는 점에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딱딱한 물성을 지닌 자개를 3차원의 유기적 형태로 구현하는 일은 공정상의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Please explain the cover piece. This sofa clearl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my work. In terms of forms, I tried to emphasize the volume of the mass while maximizing the color vibrancy of the mother-of-pearl. I inserted a sponge into the seat and finished it with leather for comfort. The backrest has also been designed ergonomically for comfortable seating.

Did you intend to combine masculine forms with feminine colors? If you have noticed masculinity in my work, it is probably because of the volume of the organic forms that I preferred. Art furniture, unlike the mass-produced furniture, must not have thin legs or a separation between the backrests and the seats. I am mostly fascinated with organic forms because I disliked the fact that the traditional mother-of-pearl creations have been limited to plane shapes back in graduate school, where I started using mother-of-pearl as the main material. However, transforming the mother-of-pearl into different organic



평면에 제한된 전통 자개 작업물에 대한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3차원의 유기적 형태로 자개 작업을 구현하는 데 몰입했다. 그만큼 공정상 어려움이 따르지만 요즘은 그 과정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집약적인 전통 제작 기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보단 계기가 있었죠. 자개를 우리만의 전통 소재로 알고 있던 대학 시절, 소품 디자인에서 건축까지 섭렵한 아일랜드 그레이(Eileen Gray)의 자개 작품을 보고 놀랐어요. 서양에서도 자개를 소재로 쓴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자개의 현대적 변주를 시도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저의 작업이 전통 나전 기법의 현대적 변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하고 싶습니다. 자개는 그저 제가 선택한 소재일 뿐이며, 제가 추구하는 아트 퍼니처의 방법론일 따릅니다.

국내에선 아직 아트 퍼니처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겠지만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 자개장이 삶과 주거공간 양식이 바뀐 지금에 어울리지 않듯, 가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는 아직 외국에 비해 시장 규

shapes is a difficult process.

Nevertheless why did you choose the labor-intensive traditional method? I had a turning point than a reason. I thought that the mother-of-pearl was a traditional Korean material back in college, but I was surprised to find out about the mother-of-pearl piece by Eileen Gray, who worked with a wide range of designs from accessories to architecture. It was the first time I realized that the mother-of-pearl is also used in the West, and I discovered the possibility of a contemporary variation of the mother-of-pearl. However, I want to avoid having my work being evaluated as a contemporary variation of the traditional mother-of-pearl techniques. Mother-of-pearl is just the material that I have chosen and the methodology of designing art furniture that I am pursuing to make.

모도 작고 인식의 저변도 확대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외국에서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죠. 예를 들어, 제 작품의 경우 자개라는 흔치 않은 소재 때문에 외국에서는 동양적이란 평가를 받거든요. 또 외국의 경우 수작업에 대한 평가가 후해서 아트 퍼니처가 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작품을 보면 공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개의 물성이 워낙 딱딱해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잦은 손길이 필요하죠. 작은 조각을 다리미를 이용해 일일이 이어 붙이는 작업이라 작은 조명을 제작하는 데도 1, 2개월이 훌쩍 지나가기 십상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사서 고생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보다 손이 덜 가고 난이도 낮은 평면 작업으로는 만족도가 올라오지 않거든요. 남들은 고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즐겁기만 해요.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생각이 앞섰지만, 지금은 도착

I can assume that you would face many obstacles because art furniture is not very popular in Korea. Just as the ordinary design of traditional mother-of-pearl does not correspond with today's lifestyles and living spaces, we need to change our perception about furniture. As you said, Korea has a small furniture market with relatively low level of awareness compared to the other markets abroad. My work, for instance, is considered oriental in a foreign market because of its mother-of-pearl. They also respect handicraft, and art furniture is highly valued for that reason.

Your creations seem to require a very complicated process. As I have already mentioned, the mother-of-pearl has a very hard texture, so you have to work on it gradually to be able to make it into the shapes you want. I used an iron to attach the little pieces

의 과정을 중시한다고 할까요? 자개 붙이기를 끝낸 뒤에도 자동차 도장에 쓰는 클리어 코팅을 많게는 열 차례 이상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목형이 아닌 FRP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테이블이나 소파처럼 큰 작품은 목형을 쓰지만 사이즈가 작은 소품의 경우보다 다루기 쉬운 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를 쓰는데, 비용이 더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제 작품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선 작업도 원래는 자개를 따 붙였는데, 나무리가 매끄럽지 않아 테이핑을 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요즘 보편화되고 있는 3D 프린터도 작업의 도구로 써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FRP보다 강도가 약해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한국 작가로서 세계적인 보편적 감성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제가 국내보다 외국에서 하는 전시에 주력했던 이유 중 하나도 우리 작업이 그들에게 어필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굳이 현대화나 한국적인 것이니 전제를 달 필요 없이, 한국인의 정서와 DNA가 묻어나는 작품은 세계 시장에 수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3, 4년 동안 쉬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했더니 재미가 극대화되고 탄력이 붙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참가는 처음인 '공예 트렌드 페어'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다 보면, 시간이 흘러 언젠가 작품의 목록이 늘어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S

one by one, and it took me one to two months just to make a small lamp. Many people are telling me that I am overworking myself for nothing, but I am not fully satisfied with 2D work that takes less effort. No matter how others think or say, the entire process gives me pleasure. When I was young, I was much more result-oriented that I only wanted to come to the conclusion as fast as I can as, but now I value the means more than the end. So now I can barely finish making a piece after repeating the clear coating process that we also use for car coating at least ten times.

Is there a reason why you use FRP instead of wooden patterns? Wooden patterns are used for larger pieces like tables and sofas while fiberglass-reinforced plastic (FRP) is used for making smaller accessories, but FRP is more costly. I used to stick mother-of-pearl for the line work, which is the signature of my work, but I prefer taping now because makes a smoother finish.

What kind of effort do you think you need to make in order to meet the universal sentiments of the world as a Korean artist? One of the reasons I have been organizing and opening more exhibitions abroad than in Korea, I think, is that what we call "our very local work" can be appealing to them. It is really about whether the works reflect the Korean sentiments that have been embedded and inherited throughout the Korean history than trying to intentionally modernize or make a typical Korean style work.

Please tell us about your plans for the future. Resuming to work after three to four years, I find the whole process fun and exciting. The first fair I will be participating in will be the 'Craft Trend Fair'. I do not have a big, ambitious masterplan, but the more I genuinely enjoy this process of creation, the more names of the works will be added onto my career list over time.



강명선 작가의 자개 작업은 노동집약적인 전통 나전 기법을 따르고 있지만 전통의 현대적 변주가 아니다. 자개는 아트 퍼니처의 소재이고 방법론일 따름이다.



©이래건축



©이래건축

한국 안 스위스, 정체성을 사유하는 건축

THE EMBASSY OF SWITZERLAND

주한스위스대사관

스위스대사관이 올해 봄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야트막한 언덕을 닮은 것이 다정도 하다. 재개발된 돈의문 마을의 생경한 풍경에 옛 한옥과 골목길을 추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깃들어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헬렌 비네, 이래건축 도움 주신 곳 주한스위스대사관

1974년 이래 줄곧 송월동에 머물렀던 스위스대사관이 공간 부족과 마모 문제로, 그 자리에 건물을 다시 짓고 새로이 단장했다. 한옥을 재해석한 이 특별한 공간은 급격한 개발로 옛 모습을 잃은 돈의문 주변에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한다. 스위스대사관의 디자인은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스위스의 건축사무소 '버크하르트+파트너'의 설계안으로 한국의 '이래건축'이 함께 진행하였다. 건축가는 빠른 변화를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을 고려해 앞으로 생겨날 주변의 변화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한옥의 마당을 차용, 그 조화로운 포용성을 주요 개념으로 삼았다. 사무국과 관저의 역할을 아우르는 이 복합 건물은 네 개의 날개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전통 한옥의 외관 구조를 따른다. 어두운 화강석이 빈틈없이 깔린 마당을 지상 1층에서 3층에 이르는 건물이 나지막하게 둘러싼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완만한 나선 형태로 올라가는 구조다. 이는 송월동의 완만한 지형과도 닮았다. 건물 바깥쪽은 노출 콘크리트 외벽으로 무겁고 단단한 인상인 반면, 마당을 향한 안쪽 면은 따스한 느낌의 목재 골조와 유리 통창으로 구성해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유럽의 광장과 한옥의 안마당 그 사이 어딘가, 사람을 모으고 연결시키는 마당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모양새다. 어찌 보면 조용한 사찰처럼도 보인다. 격자무늬의 창을 투과한 햇빛과 그로 인한 그림자가 매순간 다른 그림을 그린다.

대사관저는 개인 정원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위치하고, 대사관 중앙 마당을 향해 개방된 다른 공간들로 이어진다. 건물 밖 도로와 맞닿은 입구 파사드에는 사무동이 연결되어 자리한다. 사무동과 관저를 잇는 지붕의 휴지부(Caesura)로 대사관은 두 단으로 나뉘어 구현된다. 모든 방은 서로 연결성을 지니며 대사관 공간의 중심이면서 상징적 심장인 마당을 향한다. 그늘을 드리우는 지붕은 대사관 직원과 손님이 햇빛을 피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대사관의 밖과 안 사이 교류와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돕는다. 소재 면에서도 건물 내·외부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외벽은 얇은 금속판으

Settled in Songwol-dong since 1974, the Embassy of Switzerland, has been rebuilt and redesigned to better cope with its space limit and natural erosion. Its unique reinterpretation of a traditional Korean home has brought a sense of heritage back into the Donuimun area where the old yet classic sceneries of Korea had long been lost due to extensive modern renovation in and around the area.

This complex building, which serves as both an office building and a residence, is comprised of four wings and fundamentally follows the exterior structure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The three-story building encompasses the yard that is completely covered with dark granite. It has a moderate spiral from the east to the west, and it resembles the evenly laid terrain of Songwol-dong.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is an exposed concrete that appears to be heavy and hard; however, the interior that is facing the yard consists of a warm wooden structure with glass windows from floors to ceilings for a more accessible and flexible look. Somewhere between a European square and a front yard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it sets out to gather people and communicate with them while overlooking the yard. The roof creates a shade that provides a space for the Embassy employees and visitors to avoid being exposed to the sun while allowing smooth

주한 스위스대사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77
홈페이지 www.eda.admin.ch



한옥을 품은 새로운 스위스대사관은 목재 대들보, 한국식 처마가 담겼고 모든 공간에서 안마당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한국식 공간을 구현했다.



로 된 어두운 구조물로, 내부 마당 벽은 옅은 색상의 목재와 유리 소재를 썼다. 아연 철판으로 이루어진 지붕은 외벽의 연장선으로 보여, 더욱 웅장한 느낌을 자아낸다. 입구 파사드의 지지 구조물은 전통 한옥 양식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는 수직재(Mullion)와 수평재(Transom)를 사용한 커튼 월 형식으로,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모듈 기반 구획을 분할할 수 있다.

대사관 마당에 설치된 <워터 커백션>은 물이 지닌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환기하는 설치 작품이다. 지붕 처마와 물받이에 연결된 세 개의 레인 체인(Rain Chain)으로 구성되어, 비가 내리면 빗물이 체인을 따라 내려와 세 개의 돌을 지나 물받이에 저장된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이 빗물의 여정은 한국의 한강을 연상시키며 스위스의 라인강과 론강, 티치노강에서 가져온 세 개의 돌과 조화를 이룬다.

새로운 스위스대사관은 한국 전통의 익숙함과 이국의 낯섦이 공존한다. 한국 안에 있는 스위스라는 이곳의 정체성과, 그 주인인 스위스인의 입장에서는 반대일 터이다. 모던하고 세련된 외관이 주변의 첨단 빌딩숲과 조화를 이루는 듯 보이나, 실은 여기 원도심이 지녔던 풍경 혹은 미덕을 기억처럼 안고 있다. 새로움 안에서 우리에게 추억을 곱씹게 한다.

즉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의 곁에서 존재하면서, 긴장하고 또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것. 이 신축 스위스대사관이 가진 가장 큰 개성이 아닐까. 대사관이 가진 디아스포라적 정체성까지 깨닫고 사유하게 하는, 흥미로운 곳이다. S

스위스라는 이국이 가진 특성과 한국 전통 요소들이 서로에게 스며들고, 급박한 변화의 물결 안에서 옛 모습을 지켜나가는 의지가 담담하게 존재한다. 두 나라의 대비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interactions and switches between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Embassy building. In terms of materials, there is a clear contrast between the interior and exterior. The exterior wall is a dark structure composed of thin metal sheets, whereas the walls facing the yard are built with pale wood and glass materials. The roofing of zinc sheets is looks like an extension of the exterior wall, adding more power to the impression of the building. The bearing structure of the façade has been inspired by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It is a curtain wall with mullion and transom that can be divided into various shapes and sizes of the module-based structures. The new Embassy of Switzerland has both the familiarity with the Korean traditions and the exotic mood of a foreign country. It should be the case of vice versa for the Swiss living in the embassy building, the Little Switzerland in Korea. The modern and sophisticated exterior not only harmonizes with the high-rise buildings in the neighborhood, but also enriches the landscape with the nostalgic essence of the old town, bringing back the recollection of the past memories from something new. Such blending of different yet harmonious elements certainly seems to be the most distinguished feature of this new Embassy of Switzerland. It is an interesting place where you can realize and contemplate about the diasporic identity of an embassy.

조화와 화합의 지혜가 펼쳐지다 The Wisdom of Harmony and Balance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섬, 놀라운 경제 발전의 진원지이자 인도네시아의 과거와 현재, 눈부실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카르타는 경이로운 조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지혜의 장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셔터스톡

다양성을 추구하며 화합과 균형을 이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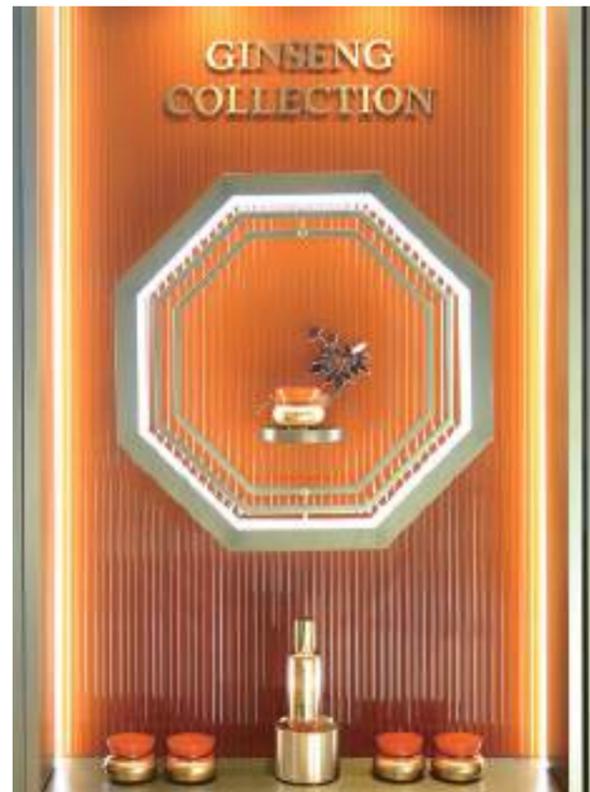
‘다양성 속의 통일’은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이다.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품고 있는 다양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인구는 2억7000만 명으로 세계 4위, 약 300개의 부족이 약 700개의 언어를 사용한다. 섬의 개수는 약 1만7000개로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다. 공식적으로 국교로 인정한 종교는 6개나 된다. 이슬람교,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가 공존하며 87퍼센트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가진 나라다. 절대다수가 무슬림이지만 이슬람만이 국교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균형과 공존을 이뤄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과 가톨릭 성당이 사이좋게 마주 보며 주차장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독특한 개방성이 드러난다. 이런 화합의 정서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여유와 긍정적인 태도, 온화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를 통해 완성되어 국가 철학으로까지 이어졌다. 인도네시아의 무궁무진한 다양성은 여행객에게도 무한한 관용을 베푼다. 수많은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 등 놀랍도록 다양한 자연과 문화를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화한 숨결을 느낄 수 있다.

Achieving Harmony and Balance Through D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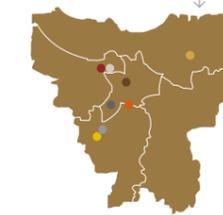
The founding philosophy of Indonesia is "Unity in Diversity", the phrase itself explains the idea of just how incredibly diverse Indonesia is. It is the fourth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with 270 million people, with more than 300 ethnic groups using approximately 700 different languages. Indonesia also has 17,000 islands, which too is the largest in the world. Officially, the Indonesian government recognizes six religions, which are Islam, Christianity, Catholicism, Hinduism, Buddhism, and Confucianism. As a Muslim state, more than 87% of the population believe in Islam, thus marking Indonesia as home of the largest contingent of Muslim population in the entire world. Although the absolute majority believe in Islam, Indonesia allows freedom in religion to promote social balance, harmony, and peace within the national community. For instance, in Jakarta, the capital city of Indonesia, several Islamic Mosques are built right next to a Catholic Church, and some of them even share parking lots. Such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one another evidently show Indonesia's unique openness to diversity. And this collective effort towards harmony has given birth to a culture that values humanity with positive attitude and global mindset that embraces diverse cultures even from foreign visitors. They can not only experience the authentic nature and culture of Indonesia at the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and the World Heritage Sites but also be part of the Indonesian community.

조화와 화합, 균형을 이루며 다양한
매력이 넘쳐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설화수는 아시아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여유로움과 생기가
넘치는 수도 자카르타는 설화수의
가치가 유난히 빛나는 곳이다.





자카르타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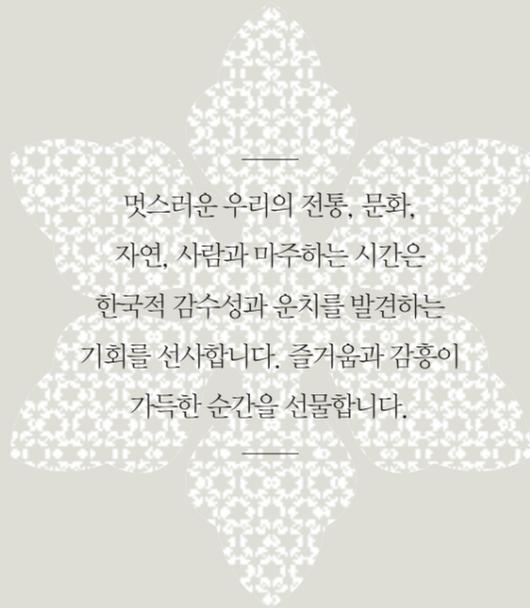
- 세이부 그랜드 인도네시아 SEIBU GRAND INDONESIA
- 소고 플라자 스나얀 SOGO PLAZA SENAYAN
- 소고 클라바 가딩 SOGO KELAPA GADING
- 소고 센트럴 파크 SOGO CENTRAL PARK
- 롯데쇼핑 에비뉴 LOTTE SHOPPING AVENUE
- 메트로 타만 앙그레 METRO TAMAN ANGGREK
- 메트로 폰독 인다 METRO PONDOK INDAH
- 소고 폰독 인다 SOGO PONDOK INDAH

생동의 빛으로 밝히는 아름다움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도시 중 한 곳인 수도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국제 무역의 동남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며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메트로폴리탄으로서 생기가 넘친다. 하늘을 채우고 있는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즐비한 대형 쇼핑몰들에서 자카르타의 활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한 센트럴파크몰은 세계 10대 규모의 빌딩으로 꼽혔을 정도로 넓은 면적과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복합 쇼핑몰이다. 이곳에서 2016년에 오픈한 설화수 소고 센트럴파크점은 아름다운 혁신을 전하며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5세대 리뉴얼을 통해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공간 곳곳에 배치했다. 자카르타 유일의 케빈 서비스룸은 홀리스틱 가치를 귀하게 펼쳐내 고객들의 만족도가 유난히 높다. 최근 자카르타 여성들의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화수의 격이 다른 한방의 아름다움을 신뢰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서다. 설화수의 효능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소고 센트럴파크점을 찾고 있으며,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기품 있는 설화수의 여정에 우아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S

Beauty Shining Through the Dynamism of Indonesia

Jakarta, the capital city and center of politics, society, economy, and culture of Indonesia, is one of the most dynamic cities in all of Asia. In particular, the Central Park Mall, which is located in the northern district of Jakarta, is one of the ten largest buildings in the world. Sulwhasoo opened one of its stores back in 2016 at the Sogo Central Park Mall where Sulwhasoo magnetized the Indonesian women's attention with its modern technology that innovatively delivers Sulwhasoo's beauty concepts. In November, Sulwhasoo updated its store at the Sogo Central Park Mall with the brand's fifth generation products in order to add fresh and new values by using the different parts of the store. One particularly popular feature of the store is the Cabin Service Room, which is the only one of its kind in Jakarta. It provides the holistic benefits of Sulwhasoo products and rituals to not only meet but also go above and beyond the customers' expectation. In recent years, women across Jakarta have become interested in anti-aging. Naturally, more and more consumers are putting their faith in Sulwhasoo and its Korean herbal medicine-based beauty products, which offer unrivaled effects in anti-aging. Countless customers, who have witnessed the effectiveness of Sulwhasoo products, return to the store at Sogo Central Park Mall to show their trust and appreciation for Sulwhasoo, their favorite luxury cosmetics brand.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구미다





삶에 음악을 선물하는 음악 전달자 The Musical Messenger Who Brings the Gift of Music to Life

전수경 음악감독

음악은 공기가 됐다. 소수의 전유가 아닌 모두가 공유하는 시대. 다양한 미디어와 술한 공간의 백그라운드에 당연하게 음악이 있다.

내가 굳이 찾아 듣지 않아도 귓가에 음악이 흐른다. 그 덕에 아침에 눈을 떠 잠들 때까지 버거운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 싶다. 전수경 음악감독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재하는 음악을 만들어낸다. 삶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술을 삶으로, 우리 곁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글 이재영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잘 산다는 건 별다를 게 없다. 36.5도, 자연에 맞춰진 인간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높거나 낮아지지 않게 적당하고 편안한 온도를 맞추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인류는 온갖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다. 가령 음악이나 그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유지하는 장치 말이다. 전수경 음악감독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삶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음악만 한 게 없죠.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음악이 좋아요.” 전수경 음악감독은 커머셜한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한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음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수경 음악감독은 광고 음악,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뮤지컬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감독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소개하는 일까지 전부 포함된다. 그녀는 적재적소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음악을 적재적소에 놓아둔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제곡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과 들으면 알 만한 광고 속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음악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세계적인 국가 행사에 참여한 건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심의 폭을 넓힌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큰 행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거든요. 마침 세대나 시대의 경계 없이 잘 녹아들 사람이 필요했고, 제게 기회가 왔던 것이죠.” 독립해 회사를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얻은 성과였고, 이후로 그녀의 음악은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 중이다.

There is nothing special about living well. It is simply about maintaining our natural body temperature at 36.5°C which feels not too high or too low, but just right and comfortable. And the mankind has created all kinds of beautiful things, such as music and paintings that help us to keep calm in this fast-changing world with full of uncertainties to be able to do this. This is why Music Director Jun Sookyung loves her job. She explains, “Music is the best way to maintain the temperature of life. I like music because it communicates with the world.” Jun specializes in commercial music. Her goal is to have her music heard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She says, “In my personal opinion, music is meaningless if no one listens to it.”

Director Jun composes and directs various genres of music for advertisements, movies, TV dramas, and musicals. In particular, her job includes settling copyright issues, as well as producing and introducing new video contents. She creates the right music for the right places and plays the music at the right time. She has created ‘Let Everyone Shine’, the theme song for the beacon lighting for the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and music for TV commercials and soundtracks for movies and TV dramas. “It was an important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a global event. It helped me a lot to communicate with diverse people and expand my interests. In such a big event, ‘communi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They needed someone who can blend well with the different generations of people, and I was lucky enough to be chosen.” It was a feat accomplished soon after establishing her own company, and her music has only become popular ever since.





생각하고, 행하라

키즈서울은 그녀가 3년 전 공동설립한 음악과 콘텐츠를 아우르는 회사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부신 성과를 이뤘고 회사는 무럭무럭 자랐다.

“일하는 순간이 좋아요. 곡을 쓰는 건 혼자 하는 작업이지만 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두루 알아야 해요. 회사 운영도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요. 더불어 새로운 걸 끊임없이 제안하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기보다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진 성격인데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늦잠 자고 싶고, 하루쯤 미뤄두고 싶을 때도 있죠. 일의 특성상 생활이 틀어질 때도 있고 밤낮이 바뀔 때도 있지만, 작은 균열로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많이 벗어나기 전에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요.” 전수경 감독이 직원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얘기도 다르지 않다. 업무로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오늘의 할 일은 오늘 끝내자. 우리 끝내고 놀자.”고 독려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나를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전수경 음악감독은 후배가 성공 성장하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 회사를 설립한 이후 비로소 선배의 마음을 갖게 됐다. 전수경 음악감독을 비롯해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키즈서울은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한다. 만들어진 영상에 맞는 음악을 찾는 것에서 나아가 아예 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일도 하고 있다. 얼마 전엔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출판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물을 내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 겁 없이 시작했어요.”

Think and Act

KEATS SEOUL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music and contents that she co-founded three years ago. Over the last three years, she has achieved remarkable results, and the company has thrived.

Jun says, “I love it when I am working. I am all by myself when I compose music, but that is not where my job ends. I have to meet with many people and have an extensive knowledge. Not only do I have to run the company, but I also have to take care of my child. I have to constantly propose and create new things at the same time. However, I tend to enjoy the entire process rather than be stressed about it.” This proves that you can never win someone who enjoys what he or she is doing. Jun states, “It is because of my personality, but I am trying not to get agitated. There are times when I want to sleep in and put things off for a day or so. My work can interrupt my life and demand me to work overnight. Nevertheless, I always trying to restore the balance right away so that little cracks do not destroy my life balance.” This is also what she always tells the employees. Whenever they are overwhelmed by work, she encourages them by saying, “Let’s get today’s job done first and rest afterwards.” Then she adds, “You have to take advantage of working with me and move forward to do better than me.”

Jun thinks it is her joy to see her junior staffs grow.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she has learned to have the mind of a supervisor. KEATS SEOUL is a group of passionate people, including herself, who boldly challenges so diverse areas of creativity. They do not just find the right



그렇게 만든 책의 이름은 <여, 행하라>. 윤영미 전 아나운서가 여행지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전수경 감독이 그 가운데 아름다운 곳들을 음악으로 만들었다. 예순여덟 곳의 이 땅 아름다운 곳을 책에 소개하고, 그중 여섯 곳과 관련된 음악을 담은 CD를 함께 포함했다. “CD가 주는 물성이 있잖아요. 여행과 어울리는 따뜻한 느낌. 곡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까지 전달하고 싶었어요.” 실천과 같은 맥락으로 그녀는 ‘속도’를 강조했다.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가장 큰 경쟁력은 속도라는 것. 그녀가 직원으로 일하던 시절만 해도 티브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대기업뿐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의 작업 속도도 달라졌어요.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 뭐든 할 수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그녀의 표정이 상기됐다. 세상에 발맞춰 달리는 러너 같았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빈틈없이 음악을 채워주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러너.

상기된 얼굴의 전수경 감독은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마침 오늘 결정 났어요. 키이츠서울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팀이 국내 굴지의 종합 광고대행사와 합병했는데, 그쪽에 콘텐츠 마케팅 본부장을 겸임하게 됐어요. 직함보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운영에 대하여 더 큰 시각을 갖게 될 기회라 좋아요.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의 고단함보다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전수경 음악감독. 그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건 먼 미래에 현재를 빼앗기지 않는 덕분이다. “저는 늘 그랬어요. 새해에도 변함없겠죠. 하루하루 충실히,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S

music for the video productions, but they also plan and produce the video contents themselves. They even published books a while ago. She states, “We did not have any experience in publishing, but we were not worried about it because we have always been planning and creating contents.” Then came the publication of the book titled <Let’s travel> as a result of that bold decision. Former Announcer Yoon Young Mi wrote about her trips and Jun created music based on the most beautiful locations among Yoon’s trips. They introduced 88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on Earth and included a CD containing music related to 6 of them. “The CD has unique properties, such as the warmth related to the trips. I wanted to deliver what I felt while composing the music.” She shared more news. “We just made the final decision today. KEATS SEOUL’s Digital Creative Team has merged with one of the major advertising agencies in Korea, and I have been appointed to lead the new Contents Marketing Department. I am more excited about being able to widen the horizons of the p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digital contents than the title. I would be able to do various things.” Jun thinks about the pleasure of working before she thinks about stress and fatigue from working. She has been able to achieve so many things because she does not let the future take over her present. She added, “I have been like this always. I will be the same after the coming New Year. I will commit myself to every single day of my life just as how I have done so far.”

메이크업&헤어 진글로에(02-516-4474)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RS9seoul(02-792-8802), 로맨시크(1644-1787), 클럽모나코(02-3447-7701), 유닛(02-2118-6491), 레이첼룩스(02-6215-0070), 골든듀(1588-6576)





온기가 머무르는 너그러운 겨울

따뜻한 차의 향이 배어 있을 듯한 브라운 컬러의 거실, 포근한 니트 아이템으로 감성 온도를 높인 벽면, 나무의 온기가 느껴지는 주방 그리고 따스한 빛을 머금은 조명까지, 공간을 아늑하게 채우는 아름다운 지혜.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왼쪽 페이지 1 내추럴 컬러 펜던트는 MUJTO by 짐블랑. 2 사각 패턴 디자인의 올 카펫은 STAGIONE by 유앤एस. 3 거친 질감으로 표현한 둥근 화병은 ZARA HOME. 4 나무 스톨은 굿핸드굿마인드. 5 백자 속우와 다과는 유상현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6 작은 손잡이가 달린 브라운 톤 화병은 김진완 작가 by 뷰로 파피에. 7 핸드메이드 터프팅 기법으로 제작한 벽걸이형 러그와 핸드메이드 워킹 작업은 모두 성영은 작가 by 앤드앳. 8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작업한 큰 우드 볼과 우드 주방도구는 모두 굿핸드굿마인드. 9 나주반을 리디자인한 나주 반반은 김영민 제99호 소반장 이수자와 이상웅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겸임교수의 협업 작품으로 한국문화재단. 10 다양한 형태로 연출 가능한 모듈 형태의 나무 촛대는 굿핸드굿마인드. 11 핑크와 레드 컬러의 옷칠 컵은 모두 양정모 작가 by 옷칠아트 MO. 12 플랫폼 미색 원형 플레이트는 AREA+.

오른쪽 페이지 1 체크 패턴의 매트리스와 롤 베개는 모두 유앤एस. 2 타원형 옷칠 트레이와 노란 옷칠 꽃볼, 검정 나무 합은 모두 박수이 작가 by 수이570갤러리에. 3 손잡이에 파란색 옷칠을 한 은스푼은 박성철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4 브라운 컬러 저그는 윤세호 작가 by AREA+. 5 모리칸 스타일의 천연 양모 푸프는 듀모로코. 6 브라운 컬러의 찻주전자와 노란색 화로는 모두 윤세호 작가. 7 나뭇결이 느껴지는 나주반은 김영민 소반장 이수자 작품으로 한국문화재단. 8 니트 소재의 태퍼스트리 작업 'Furry Omament'는 파이브콤마. 9 노란색 머그컵은 권은영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10 녹색 찬기는 이정미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포근한 빛과 감촉을 보듬다

추위에 마음마저 시린 겨울날 아늑한 조명 빛은 꽤 다정한 위로가 된다. 따뜻한 톤의 조명을 통해 눈으로 느끼는 시각의 온도를 높이면 마음에도 기분 좋은 온기가 차오른다. 은은한 빛의 캔들을 켜는 것도 훈훈한 운치를 더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창가같이 찬공기가 고여 있는 공간에 초를 켜두면 주변 온도가 3도 정도까지 올라 온기를 더해준다. 니트나 벨벳 등 따뜻한 소재로 꾸민 인테리어는 피부로 느끼는 따스한 감촉 덕분에 체감온도를 올려준다.

왼쪽 페이지 1 영화 <더 피아니스트>에 나오는 피아니스트 스펠만을 모티브로 삼아 오직 한 곳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디자인 조명은 이슬비 작가. 2 가족에 어울릴만한 오브제와 볼은 모두 김준수 작가. 3 네이비에 컬러 배색된 태피스트리 러그 작업은 파이브콤마. 4 그레이 패브릭 멀티소파는 BYHEYDEY. 5 스트라이프 패턴 직조 작업은 정영순 작가 by 램이들리에.

오른쪽 페이지 1 황동 촛대는 모두 류연희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2 진한 우드 티 라이트 캔들 홀더는 비인로그. 3 켜켜이 쌓인 형태의 우드 촛대는 굿핸드굿마인드. 4 하얀 원기둥 형태 'Woven Vase', 유기적 형태 'Furry Ornament', 옅은 핑크 노랑색이 섞인 'Aurora'는 모두 태피스트리 작업으로 파이브콤마. 5 손 성형을 통한 가느다란 떨림이 느껴지는 황병과 오브제는 모두 이진선 작가. 6 실의 따듯함과, 그것을 쌓아낸 볼륨감 그리고 딸은 패턴의 규칙성이 포근한 느낌을 주는 가구 'Cozy Cabinet'은 박정은 작가.



왼쪽 페이지 1 테라코타 컬러의 서커스 상들리에에는 AGO라이팅, 2 예코 보드와 컬러 글라스, 스틸로 작업한 수납장 'Overlap'은 박지은 작가, 3 우드 볼, 와인잔 컵은 모두 박수이 작가 by 수이570아틀리에, 4 살구색 옷칠 식기는 박수동 제113호 칠장 이수자 작품으로 한국문화재단 제공, 5 꽃이나 붓 등을 꽃을 수 있는 향아리 무늬가 있는 완초 소품은 모두 박순덕 제103호 완초장 이수자 작품, 한국문화재단 제공, 6 레스토랑 밍글스를 위해 디자인되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컬러 시트 원목 의자는 모두 크래프트 브로 컴퍼니와 AREA+의 협업, 7 원형 우드 테이블은 굿핸드굿마인드, 8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작업한 큰 우드 볼과 우드 주방도구는 모두 굿핸드굿마인드, 9 그레이 톤 화병은 AREA+, 10 우드 볼과 굽 있는 접시는 모두 박수이 작가 by 수이570아틀리에, 11 빨간색 옷칠 동 주전자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 분홍색 페인트 벽은 DE5186, 베이지색 페인트 벽은 DEC766으로 모두 던에드워드 논현점
오른쪽 페이지 1 기하학 형태 화이트 화병은 모두 FERMLIVING by 짐블랑, 2 백자 달항아리는 모두 김진완 작가 by 뷰로 파피에, 3 오렌지 컬러 벤치는 MUUTO by 짐블랑.
* 녹색 페인트 벽은 DE5495로 모두 던에드워드 논현점



자연을 품은 슬기로운 겨울 생활

우리 선조들은 겨울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더불어 지내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래서 '겨울나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지금의 겨울나기는 예전만큼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 따뜻한 자연의 물성이 느껴지는 나무 소재로 공간을 채우고, 싱그러운 식물을 통해 자연의 온기를 얻을 수 있다. 식물은 실내 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 효과까지 두루 누릴 수 있는 슬기로운 아이템이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찬란한 희망

2020년의 시작을 찬연하게 비추는 햇살은 유난히 몽클하게 빛난다. 눈부신 열정의 빛깔로 세상을 보듬고, 타오르는 환희의 빛깔로 소망을 키우는 붉은 새해 아침. 그 영롱한 시간을 설화수 윤조에센스 2020 New Year 리미티드 에디션과 함께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1월이 색깔이라면 아마도 붉은색일 게다. 예로부터 새해의 시작은 액운을 물리치는 붉은색과 함께해 행운이 가득하길 염원하고,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감사와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른 새벽부터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며 새해 첫 마음을 기다리고, 밝고 따스한 마음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매일을 가꿀 수 있기를 기도한다.



행운처럼 다가오는
완벽한 아름다움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는 새해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붉은 용기로
선보이는 윤조에센스 2020 New Year
리미티드 컬렉션. 피부의 균형을 맞추어
건강한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다.
금박의 모란으로 가득 찬 패키지 패턴은
프랑스 디자인 스튜디오 앙투아네트
푸아송과의 협업으로 유니크한 우아함을
담았다. 120ml 15만원대



만두꽃이 피었습니다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빚은 만두는 '부자가 되라'는 뜻을 담아 새해에 떡국과 함께 먹었던 정성스러운 음식이다. 다채로운 재료로 속을 채우고 곱게 빚은 만두에 복福까지 등뽕 담아 먹는 2020년은 꽃길만 걷기를 기원해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스타일링 김보선(로썬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전윤정 캘리그라피 유지하



왼쪽 페이지 석류 무늬 그림이 그려진 티 타월은 분리형. 두껍이 있는 백자 합과 미니 합. 청자 접시 모두 광주요.

오른쪽 페이지 고운 물빛의 사각 접시는 모두 박문희 작가 by 포터리밍.

소박하고 구수한 새우버섯 메밀만두



재료

(메밀 만두피) 메밀가루 1컵, 밀가루 1/2컵, 물 2/3컵, 포도씨유 3큰술, 소금 적당량
(만두소) 느타리버섯 100g, 손질 새우 150g, 다진 파 · 참기름 2큰술씩, 소금 · 후춧가루 적당량

만드는 법

1 볼에 만두피 재료들을 넣고 반죽한 뒤,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서 30분간 숙성시킨다. 2 ①을 동전만큼씩 떼어내 밀대로 얇게 밀어 삼각형 모양의 만두피를 만든다. 3 느타리버섯은 다진 뒤 팬에 볶아 식힌다. 새우와 버섯도 다진다. 4 볼에 ③의 재료들을 넣고 골고루 섞어 소를 만든다. 5 메밀 만두피에 만두소를 얹고, 다시 만두피를 엮어 삼각형 모양의 만두를 만든다. 6 한 김 오른 찜기에 ⑤의 만두를 엮어 20분 정도 찜는다.

향긋하고 개성 있는
버섯편수



재료

만두피 20장, 말린 표고버섯 2개, 물 4컵, 국간장 1큰술, 장식용 만가닥버섯·은행 적당량씩 (만두소) 송화버섯 50g, 만가닥버섯 50g, 양송이버섯 3개, 두부 1/3개, 달걀흰자·간장 2큰술씩, 다진 파·참기름 1큰술씩, 다진 마늘 1작은술, 소금·후춧가루 적당량

만드는 법

1 버섯은 잘게 다진 뒤 달군 팬에 볶아 식힌다. 2 으갠 두부는 면보를 이용해 물기를 짜낸 뒤 볼에 넣고 ①의 다진 버섯과 나머지 만두소 재료와 잘 섞는다. 3 만두피에 ②의 만두소를 얹고 가운데로 맞물리게 붙여가며 편수 모양으로 빚는다. 4 냄비에 물을 붓고 말린 표고버섯을 넣어 팔팔 끓여 표고버섯 육수를 만든다. 5 냄비에 편수만두를 넣고 ④의 육수를 부어 끓인다. 6 만두가 반 정도 익었을 때 국간장으로 간하고 장식용 만가닥버섯과 은행을 넣고 마저 끓인다.

달고 속 편한 별미
배추만두

재료

배춧잎 10장 (만두소) 다진 돼지고기 150g, 부추 40g, 다진 파 1큰술, 굴소스·참기름 2큰술씩, 소금·후춧가루 적당량 (들깨 소스) 들깨 3큰술, 물 2큰술, 간장·식초·설탕 1큰술씩, 다진 마늘 약간

만드는 법

1 부추는 잘게 썰어 볼에 넣고 나머지 재료들과 함께 고루 섞어 만두소를 만든다. 2 배춧잎은 끓는 물에 데친 뒤 찬물에 헹구 물기를 가볍게 짠다. 3 믹서에 들깨 소스 재료들을 넣고 곱게 간다. 4 ②의 배춧잎에 만두소를 얹고 가장자리를 접어가면 돌돌 말아 만두를 빚는다. 5 한 김 오른 찜기에 배추만두를 얹고 15분간 쪄 다음 들깨 소스와 곁들여 낸다.



왼쪽 페이지 풀무늬 황아리 그림이 그려진 티 타월은 본리빙 백자 사각 볼과 종지는 모두 우일요. **오른쪽 페이지** 고운 물빛의 사각 접시는 모두 박문희 작가 by 포터리빙. 물고기 모양의 백자 수저 받침은 우일요.

귀한 새해 음식
닭고기 복만두떡국

재료

컬러 만두피 20장, 조랭이 떡 100g, 닭 육수 6컵,
소금·국간장·장식용 대추 적당량
(만두소) 닭 안심 120g, 미나리 30g, 당면 30g, 다진 파
2큰술, 간장·참기름 1큰술씩, 소금·후춧가루 적당량

만드는 법

1 닭 안심과 미나리는 잘게 다지고 당면은 따뜻한 물에
30분간 불린 뒤 잘게 다져, 불에 나머지 재료와 함께 넣고
섞는다. 2 컬러 만두피에 만두소를 적당량 얹고 복주머니
모양으로 주름지게 만두를 빚는다. 3 냄비에 닭 육수를 넣고
끓어오르면 ②의 만두와 조랭이 떡을 넣고 익힌다. 만두가
거의 다 익었을 때 소금과 국간장으로 간한다. 4 그릇에
완성된 만두국을 담고 대추 곱개를 얹어 장식한다.



福



왼쪽 페이지 福자가 새겨진
합과 접시 모두 우일요.
청색 시과 도자기 오브ژه는
포터리밍.
오른쪽 페이지 모란 무늬
항아리가 그려진 티 타월은
본리빙, 사각 굵 과반은
우일요, 청자 굵 잔은 광주요.

담백한 평양의 맛
굴림만두 전골



재료

(굴림만두) 다진 돼지고기·다진 소고기 100g씩, 두부 1/4모, 부추 30g, 다진 파·간장 2큰술씩,
다진 마늘·참기름 1큰술씩, 밀가루·소금·후춧가루 적당량
(전골) 배추 3장, 새송이버섯 1개, 애너타리버섯 30g, 미나리 10g, 홍고추 1/2개, 달걀 1개,
쇠고기 육수(또는 멸치 육수) 6컵, 소금·포도씨유 적당량

만드는 법

1 두부는 으갠 뒤 면보를 이용해 물기를 쥘다. 2 부추는 잘게 썬다. 3 볼에 밀가루를 제외한 만두
재료를 넣고 고루 섞은 뒤, 한 입 크기의 경단 모양으로 빚는다. 4 ③에 밀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넣어
반쯤 익힌 뒤 건진다. 5 배추와 버섯, 미나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홍고추는 송송 썬다. 6 달걀은
지단을 부쳐 1×4cm 폭으로 썬다. 7 전골냄비에 굴림만두와 손질한 채소들, 달걀 지단, 육수를 넣고
끓인 뒤 소금으로 간한다.

천년 고도에서 본 시간의 무늬

Marrakesh & Gyeongju

마라케시 & 경주

발길 닿는 곳곳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그래서 여행자의 숨결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도시들.
까마득한 과거에 여기에서 일상을 보냈을 어떤 사람들을 그려보고, 그 위에 나의 모습을 살짝 올려둔다.
그렇게 겹겹이 쌓인 레이어는 또 아주 오랜 후에 전혀 새로운 풍경을 만들 것이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마라케시. 술한 역사적 부침에 시달렸던 이 천년 고도는 그만큼 다채로운 색깔과 개성을 지녔다.



모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마라케시. 카사블랑카에서 남쪽으로 250킬로미터 떨어진 아틀라스산맥 북쪽 기슭에 위치하는 이곳은 1062년 베르베르인이 이룬 알모라비데 왕국의 수도로 건설되었다. 13세기에는 마리니드 왕조에게 정복되었고, 1912년에는 프랑스에 점령당하는 등 역사 내내 격변을 겪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북서 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 중심지로 번영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붉은 사막의 대비, 그리고 그 강렬한 빛깔을 닮은 건축물과 미로 같은 골목들. 마라케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다. 마라케시의 원도심인 메디나는 높이 9미터, 길이가 12킬로미터에 이르는 붉은 성벽(카스바)에 둘러싸여 있다. 과거 성벽 안에는 왕족이, 밖에는 서민들이 거주했다. 끝도 없어 이어지는 거대한 성벽을 따라 걸으며, 여러 부족 간 세력 다툼과 침략이 심했던 이곳의 역사를 짚어본다.

제마 엘프나는 마라케시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큰 광장이다. 이 광장은 1147~1158년 사이 시가지의 둘러싼 외벽을 확장하며 생겨났다. 과거 대역 죄인을 처형하고 그 목을 걸어놓아 '사자死者의 광장'이란 이름이 붙은 이곳은, 현지인과 세계에서 모여든 여행자로 언제나 시끌벅적하다. '세상에서 제일 흥미롭고 에너지가 넘치는 광장'이라는 평을

Marrakech, the second largest city in Morocco, is located 250 km to the south of Casablanca at the northern foot of the Atlas Mountains where the Almoravid Dynasty of the Berber founded its capital in 1062. It was conquered by the Marinid Dynasty and France in the 13th Century and in 1912 respectively. Despite all the historical turmoil, it has flourished as the Islamic culture hub in northwestern Africa.

The representative images of Marrakech are the contrast between the red desert under the hot, scorching Sun, the buildings reflecting those powerful colors of the sunshine, and the maze-like alleys. Medina, the old town of Marrakech, is encased in red walls (Kasbah) that stand 9 m in height and 12 km in length. In the past, the royal families resided within the wall sides while the commoners stayed outside the walls. Walking along the endless trail of massive walls, the visitors can gain an indirect experience of the intense struggles and fights among various tribes from which the place had long suffered. Jemaa el-Fna is a big square at the center of the old town of 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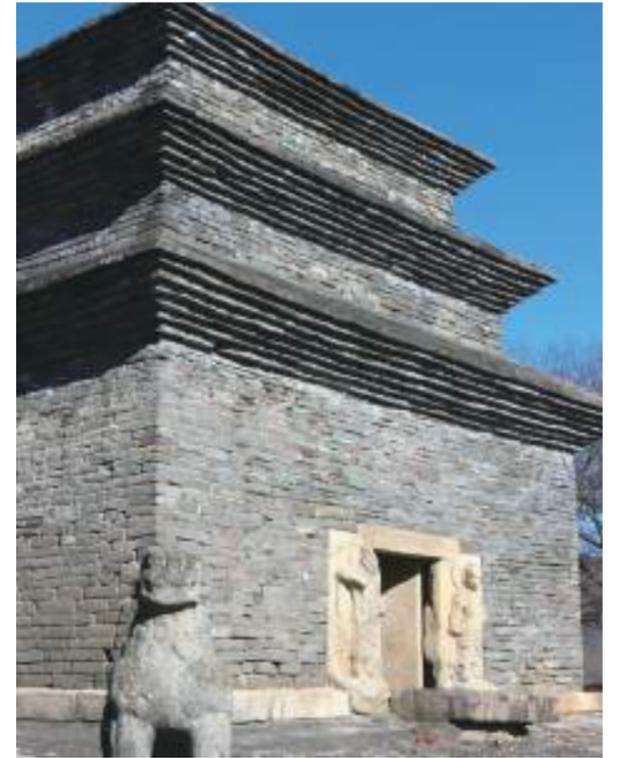
받고 있는 제마 엘프나. 영화에서나 보았던 코브라를 부리는 상인, 고혹적인 눈빛의 무희가 펼치는 화려한 춤사위, 천 년 전에 사용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신비롭게 보이는 빈티지 물건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과거와 오늘이 자유분방하게 만나고 뒤섞인다.

제마 엘프나 주변 골목이 미로처럼 조성된 수크(재래시장)에서 물건 흥정을 하고, 모로코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쿠투비아 모스크에 걸린 석양을 바라보는 그 모든 순간이, 꿈결처럼 몽롱하다. 이 천년 고도가 지닌 시간의 마술일까.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마라케시에 비하면, 우리의 경주는 고즈넉한 정취로 그 오랜 역사를 표현한다. 천 년 가까이 신라의 수도로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경주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푸르른 잔디를 곱게 입은 거대한 무덤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야트막한 담장 너머로 봉긋 솟아오른 왕릉의 곡선이, 구름 하나 없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아득하다. 경주의 왕릉은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고 상징적인 풍경이다. 그 모든 왕릉의 주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며, 여덟 군데 정도만이 유물 등을 통해 왕을 추정하고 있다. 천마총은 신라 22대 지중

rakech. The square was created between 1147 and 1158 during which the outer walls surrounding the town were being expanded. It is also commonly known as the 'Square of the Dead' because this used to be the place where criminals were beheaded and their necks were hung up. Moreover, the square is always crowded with the local people and travelers from around the world. Widely described as 'world's most interesting and energetic square,' Jemaa el-Fna is where exists the rich mixture of the past and present of Asia, Europe, and Africa.

In contrast to Marrakech brimming with vitality and energy, Gyeongju of Korea reflects its long history filled with calm sentiments. Gyeongju bloomed into an advanced civilization as the capital of Silla for nearly a thousand years, which has turned the entire city into a great museum even until today. The magnificent tombs dressed in green grass are captivating. The curves of the royal tombs that rise over the shallow walls under the clear blue sky transcend time and space. The royal tombs are the symbols of Gyeongju because so many of them have been found in Gyeongju. We have not yet found who is



왕의 능으로 예상되는 고분으로, 1973년 발굴되어 국보 제207호인 '천마도'와 국보 제188호인 금관 등 무려 1만1297점의 부장품이 다시 세상 빛을 보았다. 순백의 천마天馬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림인 '천마도'에서 '천마총'이란 이름이 붙었다. 1500년이란 까마득한 시간을 고요하게 잠들어 있던 무덤 내부에 들어선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 그 옛날 사람들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왕을 위해서 행했던 그 섬세하고 성실한 흔적에, 문득 마음이 일렁인다.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깊고 깊은 강이, 경주가 지닌 긴 시간과 더불어 유독 가깝게 느껴진다.

신라 왕궁의 별궁 터인 동궁과 월지로 향한다. '안압지'로도 불리는 여기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직후인 문무왕 14년(674년)에 조성되었다. 중국의 명산인 무산巫山의 열두 봉우리를 본떠 돌산을 만들고 연못에는 3개의 섬을 띄워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한다. 동궁과 월지의 매력은 땅거미가 진 이후에 더욱 빛난다. 깊은 푸르름을 간직한 어스름 위로 황금빛 조명에 비친 궁궐이 낮과는 전혀 다른 인상으로 떠오른다. 마치 이제 누구의 기억에서도 사라져버린, 찬란한 옛 영광을 꼭꼭 되새기는 것처럼. S

buried in each of the tombs, but we were able to infer about eight of them based on the artifacts found at the tomb. The elaborate artifacts of the traditional people are exhibited in a rather large space, as you step into the tomb that has been sleeping silently for 1,500 years. The delicate and devoted handcraft skills put into every artifact for the king are truly impressive. The deep river between life and death feels rather close, along with the long history of Gyeongju.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the sites of the royal villa in Silla's palace also known as 'Anapji Pond,' were created in the 14th year of King Munmu (674) right after Silla unified the three empires. A rocky hill was created after the 12 peaks of the famous Mt. Wushan in China and the islands were formed in the well to keep rare birds and animals.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look even more majestic after sunset. The palace with the golden light shining over the depth of dusk looks completely different from how it looks during daytime, as if it remembers its long-forgotten glorious splendor.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경주. 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왕릉의 푸르고 부드러운 곡선과 고풍스러운 옛 건축물을 만난다.

꽃과 나비, 새가 부르는 봄의 찬가

꽃이 부르는 연가와 나비의 화사한 춤사위, 기쁨에 넘치는 새의 지저귀음이 어우러지는 설화수의 2020년 스프링 리미티드 컬렉션은 분홍빛 봄이다.

아직은 먼 듯 느껴지지만 어김없이 다정하게 다가올 이 봄은 얼마나 환하고 빛날까!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퍼펙팅 쿠션 & 자정브라이트닝 쿠션 Perfecting Cushion & Snowise Brightening Cushion

'양뚝아네트 푸아송'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화사한 매화와 나비가 패턴이 섬세한 자수로 표현된 패브릭 케이스가 우아하기 그지없다. 2020년 스프링 리미티드 컬렉션으로 출시된 퍼펙팅 쿠션과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이 담긴 케이스다. 촉촉하고 생기는 넘치는 피부로 표현해주는 퍼펙팅 쿠션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선사하는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은 봄을 담은 아름다움과 함께 부귀영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까지 깃들여 있다. 퍼펙팅 쿠션 (15g x 2) 6만5000원대,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14g x 2) 6만8000원대

How to use 파운데이션 사용 단계에서 퍼프를 이용해 적당량을 취한 후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이 바른다. 결점이 있는 부위는 내용물을 덧발라 완벽하게 커버한 피부로 표현해준다. 쿠션 사용 전 메이크업밸런스X를 사용하면 쿠션 커버, 지속력 증가에 도움이 된다.



설 린 에 셴 스
Bloomstay Vitalizing Serum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 꽃망울을
터트리며 매화꽃의 강인한
생명력을 피부에 고스란히 전달하는
설린에센스. 항산화 에너지를 담은
녹매화 꽃봉오리 성분이 피부 노화
징후를 완화하고 발아 오방중실
성분이 더해져 맑고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꿀 같은 영양감의
텍스처는 부드럽고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50ml 14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설린수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펴며 피부
결을 따라 밀착감 있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펴 바른다.



설 린 아이 크림 기 획 세 트
Bloomstay Vitalizing Eye Cream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가 눈가 피부 노화는 물론 스트레스 등의 외부 유해 요인으로 인한 눈가 피부 피로와 다크서클까지
케어하는 생기 탄력 아이 젤 크림. 진정 효과가 있는 상삼자 성분을 담은 서벳 제형의 젤 크림과 함께 구성된 자막 아이
마시저는 눈가 피부에 맑은 생기를 부여하고 미세순환을 도와준다.

20ml 10만원대(아이크림 20ml 본품 + 매화 지수 패치 + 수 15ml 견본품 + 크림 5ml 견본품 + 에센스 8ml 견본품)

How to use 약지로 눈가 피부 주변에 설린아이크림을 바르고 원을 그리듯 발라 흡수시킨다. 마사저를 활용해 왼쪽부터
눈가에 8자를 그리며 쓸어주고 눈가 아래, 눈썹 손으로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쓸어준 뒤 관자혈에 원을 그리며 마무리한다.





에센셜 립세럼 스틱
Essential Lip Serum Stick

동백 오일, 홍화 콤플렉스가 건조하고 생기를 잃기 쉬운 입술에 화사하고 촉촉한 보습을 선사한다. 향인유와 쫄쫄한 엘라스틱 콤플렉스는 입술을 빈틈없이 감싸 매끄러운 입술로 가꿔주고 매화꽃 같은 건강한 생기와 자연스러운 윤기가 피어난다. 4호 로즈 레드, 5호 블라썸 코랄 각 3g 4만원

How to use 입술에 건조함이 느껴질 때 낮과 밤 수시로 덧바른다. 입술 세로 주름을 채우듯이 바른 뒤 생기가 부족한 부분에 한 번 더 바른다.



2020년 스프링 리미티드 컬렉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더딘 듯 이내 찾아온 봄은 늘 어여쁘고 감사하다. 설화수가 피어내는 봄은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다. 한국 전통 문화와 공예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설화수 스프링 리미티드 컬렉션이 선사하는 봄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어서다. 2020년 설화수 스프링 리미티드 컬렉션은 봄의 정령답게 전통 화조 병풍에 수놓인 꽃, 나비, 새를 로맨틱하고 우아한 아트웍으로 표현해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이 작업은 동양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세계적인 일러스트 아티스트 그룹인 '앙투아네트 푸아송'과 함께 이뤄졌다. 이들은 18세기 프랑스 장식미술 가운데 중요한 유산인 벽지를 복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패브릭과 벽지 등의 패턴 디자인을 전개하는 팀으로, 한국 전통 병풍 속 매화와 나비를 현대적인 패턴으로 재해석해 예술적 가치를 높였다. 여기에 설화수는 최초로 '자수 기법'을 적용해 금색, 은색 실들이 어우러진 자수 쿠션을 완성해 '앙투아네트 푸아송'이 만들어낸 패턴의 섬세한 미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탄생한 스프링 리미티드 컬렉션은 퍼펙팅 쿠션, 자정 브라이팅 쿠션, 에센셜 립세럼 스틱 등 메이크업 제품 3종과 설린에센스, 2020년에 새로이 출시된 설린아이크림 등 총 5가지 컬렉션으로 구성된다. 우리 조상들은 사랑과 부귀영화, 행복 등 길상의 의미가 담긴 전통 문양이 새겨진 물건을 지니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양의 상서로움이 스민다고 여겼다. 그 믿음처럼 활짝 피어난 스프링 리미티드 컬렉션과 함께 꽃처럼 아름다운 봄을 기다린다. S

2020 Spring Limited Collection The 2020 Sulwhasoo Spring Limited Collection has become a piece of artwork with the incorporation of flowers, butterflies, and birds into the traditional Korean patterns. The flowers, butterflies, and birds embroidered on the partitions that were used to decorate the master bedrooms for stylish women have been brought into a romantic and elegant artwork through the touch of ANTOINETTE POISSON, a group of illustration artists. Based on the experience of restoring the old wallpaper which was a major cultural heritage of the 18th Century French decorative art, they create pattern designs for fabric and wallpaper. This time, they have reinterpreted the plum blossoms and butterflies in the traditional Korean foldable partitions in contemporary patterns to enhance the artistic value. Sulwhasoo has applied the 'embroidery technique' for the first time to complete the embroidered cushion with golden and silver yarns and express the elaborate aesthetics of the patterns created by 'Antoinette Poisson.'

The Spring Limited Collection consists of three makeup products, namely, Perfecting Cushion, Snowise Brightening Cushion, and Essential Lip Serum Stick, as well as five makeup products, including Bloomstay Vitalizing Serum and Bloomstay Vitalizing Eye Cream, which are newly added in 2020.

Korean ancestors believed that possessing items with traditional patterns on them would bring luck, prosperity, and happiness to the people in possession of those items. Inspired and designed by the ancestors' belief, Sulwhasoo's 2020 Spring Limited Collection hopes to bring you a joyful spring filled up with dreams and happiness.



정성스러운 설화수 헤리티지로 채우는 피부 에너지 Revitalizing the Skin with Carefully Selected Sulwhasoo Heritage Ingredients and Rituals

새해, 젊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진귀한 경험이 설화수 스파에서 시작된다. 설화수의 헤리티지를 담아 새로워진 스파 프로그램은 진정한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과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했다. 피부 에너지를 채우는 스파의 정수가 여기에 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오희원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홀리스틱 뷰티를 실현하는 설화수 스파가 있다. 지친 피부를 다스려주는 귀한 한방 성분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리추얼을 통해 국내 고객은 물론, 외국 고객들로부터 특별한 스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지하 1층 '설화수 스파'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파 프로그램을, 4층에 위치한 '설화수 밸런스 스파'는 흐트러진 균형을 회복시키고 재충전해주는 컨템포러리 한방 스파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힐링 공간이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새로워진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곳은 '설화수 스파'다. 기존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안티에이징 에너지를 선사하는 '얼티메이트 리스토러티브 저니'는 설화수가 펼치는 가장 지극한 정성을 경험할 수 있다. 깊은 안식을 느낄 수 있는 홍삼수 하이드로 베스를 시작으로, 영지버섯과 액티브인삼셀™이 농축된 진설명작크림, 적송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진설 라인을 통해 젊음의 에너지를 채워준다. 자연의 에너지를 품은 흑요석 애플리케이터와 레드파인스틱마사저의 활용은 트리트먼트 효과를 더한다. 180분 동안 이어지며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프레스티지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으로, 설화수가 전하는 궁극의 감동이 경험하게 한다. 한편 새롭게 론칭하는 '타임리스 레드파인 저니'는 시간을 압도하는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 긴장을 다스리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이다. 따뜻한 기운을 품은 백옥 보석 마사저로 뭉친 등 피부에 편안함을 선사하고, 피부 근본의 힘을 끌어올리는 진설크림과 호박 애플리케이터를 이용해 노화 고민을 다각도로 개선하여 젊은 피부를 완성한다. 귀한 설화수 제품과 더 정성스럽게 단장한 설화수 스파에는 절정의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S

SULWHASOO SPA has prepared some new programs for coming 2020. In particular, the "Ultimate Restorative Journey" is expected to provide its customers unprecedented personal care and services that ultimately deliver an even more powerful anti-aging energy. It will start with a "Red Ginseng Water Hydro Bath" for deep relaxation and tranquility. Then, the customers will be served with the Timetreasure Honorstige Cream featuring reishi mushroom and Active Ginseng Cell™, as well as other Timetreasure line products that contain strong life force extracted from the Red Pines in order to add a youthful energy to their skin. The Obsidian Applicator and the Red Pine Stick Massager even amplify the products' treatment effects. This prestige anti-aging program lasts 180 minutes. Customers will receive the ultimate care from Sulwhasoo through every minute of the program. The newly launching "Timeless Red Pine Journey," on the other hand, is another premium anti-aging program designed to relieve tension in the skin by using the eternal energy extracted from Red Pines. This program starts by using a warm Luxury White Jade Massager to relieve the tense skin and muscles. The Amber Applicator is then used to apply the Timetreasure Invigorating Cream, which enhances the skin's natural resilience, in order to better address aging-related concerns from various approaches and create a youthful-looking skin. SULWHASOO SPA aims to deliver the ultimate beauty experience with high-quality Sulwhasoo products and highly advanced programs.



강력한 안티에이징을 선사하는 진설명작 라인과 진설 라인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설화수 스파에서도 새해부터 경험할 수 있다. 자연의 에너지를 품은 다양한 애플리케이터는 피부 에너지를 정성스럽게 채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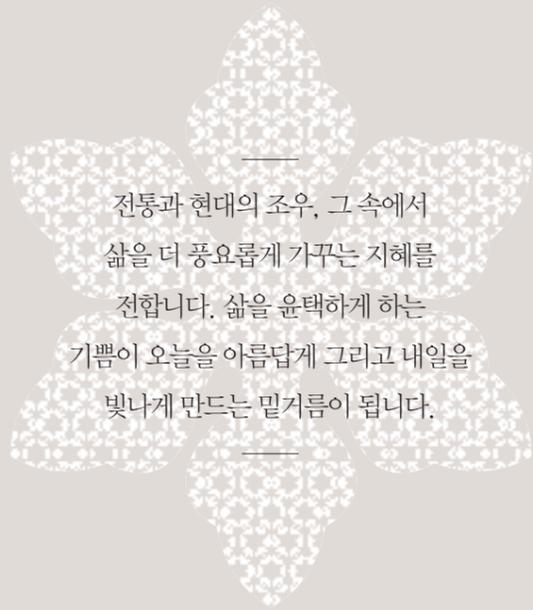


마침내, 명작이 되다

설화수 진설명작

수천년 아시아의 지혜에 완벽을 더해 탄생한 진설명작
전설적인 힘을 가진 영지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아
마침내,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Sulwhasoo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의류과





현대인에게 수공의 매력이 담긴 따스한 아날로그 감성을 제안하는 도자 필기구 세트는 권성은 작가.

상서로운 꽃 자수로 전하는 새해 문안

꽃 살 문 자 수 연 하 장 만 들 기

색색의 실과 자그마한 바늘 하나가 조화를 부리면, 아가지기한 꽃밭과 너울너울 나는 백로 한 마리가 이내 그려진다. 삶을 더 아름답게 채우고자 했던 그 마음이 부지런한 여인의 손놀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꽃 자수공방 바늘,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수는 동서양에 모두 존재하는 공예로, 자수로 구현된 문양과 색은 인류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천이나 종이, 가죽 등의 표면에 실이나 끈, 천 조각 등을 누비거나 붙이고 묶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식하는 수예 기법을 가리키는 자수는 '실로 그리는 회화'라고도 불린다. 자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원전 3000년 경 고대 이집트 왕조의 무덤에서 발견된 비즈(구슬)로 장식한 자수 유품이 제일 오래된 자료다. 인류는 점점 문명을 구축하면서 의복이나 소지품에 계급 표시 등을 목적으로 자수 장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직물의 표면을 장식하는 조형예술로 발전했다. 자수는 각 민족이나 환경, 풍습, 종교에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양식을 이루고 있다. 서양에서는 고대국가인 프리기아(Phrygia)가 지녔던 탁월한 자수 기술이 로마인에게 계승되었고 비잔틴 제국과 그리스도 교화에 인계되어 궁정인의 복식이나 교회 내 길게, 종교복의 장식용으로 발달했다. 중세에 이르자 자수는 교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귀부인들이 다양한 자수 기술을 습득해 귀족 사회에 유행했다. 16~17세기에는 귀족이나 부유층의 벨벳, 브로케이드 등 중후한 의복을 화려롭게 장식하는 데 사용되면서 종교계에서 일반 사회로 자수 문화가 더욱 확장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궁정 문화가 유럽 전체를 풍미했던 17~18세기에 자수는 최전성기를 맞이해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복식 자수는 거의 완전하게 자취를 감추었고 실내장식에 주로 이용되었다.

동양의 자수는 천과 실, 문양, 용구, 기법, 용도 등이 서양 자수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서양 자수가 면직물에 면사를 사용해 추상과 반추상의 세계를 구현한다면, 동양은 주로 비단을 바탕으로 견사를 사용하며 동양화 같은 사실적 표현이 이루어진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품은 중국 허난성 안양安陽 은묘에서 출토된 기원전 1300년 경의 유품이며 기원전 150년 전후로 추정되는 자수 유품이 중국 후난성 창사시長沙市 마왕퇴 한묘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되기도 했다. 일본의 <일본자수연표>의 기록에 따르면 430년 백제에서 자수 기술이 전해졌다고 한다. 또한 고구려의 가서일加西湓이 만들었다는 천수국 만다라수장天壽國曼荼羅繡帳이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한 민족의 미감 담은 자수 문화

우리나라의 자수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 다채로운 특성을 보여준다.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에는 “부여인은 외국에 나갈 때에 증縵·수縵·금縵·계縵로 지은 옷을 즐겨 입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수’는 금은색사金銀色絲로 수놓은 비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자수는 훼손되기 쉬운 재질의 특성으로 당대의 유물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지배층의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표시로 옷과 깃발, 수레 등을 자수로 장식했다는 기록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꽃살문 자수 연하장 만들기

준비물 비단, 광목, 명주실, 수틀, 꽃살문 도안, 가위, 바늘, 금사, 은사, 카드, 밀가루풀이나 목공풀, 흰색 먹지

만드는 방법

- 1 비단 천 사방에 광목을 덧댄 뒤 광목 부분을 압정으로 수틀에 팽팽하게 고정한다.
- 2 꽃살문 도안으로 수놓을 위치를 잡고 흰색 먹지를 대고 도안을 그린다.
- 3 도안에 맞춰 명주실로 꽃살을 평수로 채운다. 테두리는 금사, 은사로 징금수를 놓는다.
- 4 수놓은 비단을 수틀에서 분리하고 광목을 떼어낸 뒤 밀가루풀을 먹이고, 한지에도 밀가루풀을 먹여 둘을 밀착시켜 붙이는 배접 작업을 한다.
- 5 카드 정면을 수크기에 맞춰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내고, 하루 정도 말린 @를 고정시켜 꽃살문 연하장을 완성한다.

자수공방 바늘 우리나라 전통 자수 기법과 유물을 바탕으로 정성과 의미가 담긴 작품을 만드는 자수공방. 2019년 설화아트전에서 '꽃살문 병풍'을 선보였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1라길 37-3 **문의** blog.naver.com/johembroidery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 진덕여왕이 650년에 손수 비단을 짜서 여기에 오언五言 「태평송太平頌」을 수놓아 당나라 고종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친당외교 선물로 제작된 「태평송」 자수는 5언 20행으로 도합 100여 자의 한자가 수놓인 대작이다. 그 내용은 고종의 치적을 칭송하는 의례적인 것이었다. 이 기록은 자수품이 국가 간 친교를 위한 증여용으로 귀하게 쓰였다는 것, 그리고 평민에서 여왕에 이르기까지 자수가 보편적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고려도경〉 왕복조王服條에 보면 “고려 왕은 상복常服을 입을 적에는 높은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소매가 좁은 얇은 황색의 포袍를 입고 자주색 나羅로 만든 넓은 허리띠를 두른다. 허리띠 사이사이에는 금사金紗와 벽사碧紗로 수를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왕비와 귀부인은 그림 또는 자수 문양으로 장식한 붉은색의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자수는 ‘흉배’로 대표된다. 흉배胸背란 계급을 나타내는 표장이다. 문관은 새 문양, 무관은 네발 달린 동물 문양으로 장식했다. 조선시대의 흉배 제도는 고유의 체계를 갖추고 중국과 다른 기법과 문양으로 독자성을 이루며, 자수 작품 중에서도 독특한 아름다

움을 지닌 예술로 평가받는다.

한편 조선의 궁중에서도 자수는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궁중 안에서 필요한 자수 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수방繡房이 있었을 정도였으며, 이곳에서 한말까지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정교한 자수품이 꾸준히 만들어졌다.

한 땀에 정성을, 한 땀에 사랑을

자수는 유구한 역사만큼 그 안에 깃든 의미도 크다. 자수에 쓰이는 수많은 문양은 모두 길한 의미와 기원을 품고 있다. 섬세한 점들을 떼서 그것을 선으로 만들고, 면과 형태로 발전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자수를 놓는 이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 지루할 수도 있을 그 오랜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 만드는, 수련과 명상이 깃든 아름다운 세계다.

이번 ‘배움의 기쁨’에서는 새해를 맞아 소중한 이들에게 건네는 연하장을 자수로 채워보았다. 화려하고 정교한 꽃살문은 상서로움, 그리고 지극한 깨달음을 뜻한다. 늘 싱싱한 향기를 전하는 꽃 자수가 다시 펼쳐지는 새로운 날들을 축복해준다. S

은은하고 고결하게 밝힌 빛 A Subtle and Graceful Radiance

전기 없던 그 옛날에 빛은 더없이 소중하고 귀했으리라. 초, 등잔, 초롱 등 오랜 세월 밤을 밝혀준 등화 기구 중
가구 형태인 좌등은 다소 생소하지만 꽤나 고혹적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전통문화전당

추운 겨울, 따뜻하고 온화한 빛 한 줄이 머무는 공간은 아늑하고 포근하다. 전기가 석유가 없던 시절에도 밤에는 포근한 빛을 밝혔는데, 식물성 씨앗 기름과 동물성 지방을 태우거나 초를 켜는 방식이었다. 이를 담는 기구들은 등기, 등촉구, 등화구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고 시대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집 안에서 쓰였던 전통 등화구는 기름을 담아서 불을 켜는 등잔燈籠과 등잔대, 초와 초를 켜는 촛대를 오랜 시간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등잔대와 촛대는 주로 나무, 무쇠, 유리, 백동 등으로 만들었고 높이가 고정된 형태를 '등기',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등경'이라 불렀다. 사극 드라마나 박물관에서 자주 봐온 터라 익숙하겠지만 이런 등기와 등경, 촛대를 넣을 수 있어 가구처럼 사용했던 좌등座燈은 꽤 색다르다. 좌등은 방 한 편에 놓아 사용한 등기구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등잔이나 촛대와 달리 실내 전체를 은은하게 밝힌다. 수려한 구성미와 다채로운 조각이 예술 작품 못지않아 상류층이 향유했던 등화구임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이 좌등은 지붕처럼 기울어진 천판에 철보 무늬를 투각해 장식 기능은 물론 환기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옮길 때 편리하도록 T자형 손잡이를 달았다. 유리창 위쪽에 구름과 용, 십장생, 소나무, 학, 넝쿨무늬를 새기고, 아래쪽에는 포도와 석류, 넝쿨무늬를 투각해 빛이 투영되면 휘황한 분위기를 돋우었을 것이다. 창 아래에는 불을 켜는 데 필요한 도구를 넣었음직한 서랍을 두었는데 모란, 매화, 새 무늬 등의 세심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다리는 궁궐과 상류층의 가구와 소반에 널리 사용된 호랑이 다리 모양을 본뜬 호족형이다. 현대에서 좌등은 플로어 스탠드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유배근 장인의 한지발과 권원덕 작가의 소목 작업이 어우러져 은은한 빛을 발하는 '한지발 스탠드'는 좌등의 우아한 빛을 닮았고 가구로서의 존재감은 확연하다. S

In the past the traditional lamps predominantly used in households contained oil or candles to keep the light on for a long time. Furthermore, the lamps for oil and candles were mostly made of wood, iron, copper, and nickel. Those with fixed height were called 'Deungga', while the others with adjustable height were called 'Deunggyeong'. You must have seen them in the TV dramas and museums, but these lamps and the floor lamps designed to put candleholders inside were rather different. The floor lamps were placed at one corner of the room to provide ambient lighting, unlike the oil-burning or candle lamps that create a focal lighting. It is easy to tell from the lamps' beautiful design and elaborate engraving that they belonged to the upper class households. This floor lamp, which is exhibit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Chilbo patterns bratticed on the fabric panel that is sloped like a roof for ornamental and ventilating purposes, along with T-shaped handles attached for portability. On top of the glass panels are the engravings of clouds, dragons, the 10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pine trees, cranes, and ivy, while grapes, pomegranate, and ivy patterns were engraved on the bottom in order to enhance the mood with light. These floor lamps could be considered as similar to the floor stand lamps that we use today. Made by collaboration with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 Master Yoo Bae Geun's work called Hanjibal and Master Kwon Won Deok's delicate wooden artifact, the "Hanjibal Stand" has its value as a classic modern furniture recognized for its subtle lighting that resembles the graceful light of the floor lamp.



좌등, 조선시대



한지발 스탠드, 유배근 · 권원덕



개념과 구축을 연결하는 업

건축가 김이홍

만약 새로운 전공과 직업을 가질 기회가 생긴다면 건축을 택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장소,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올해 설화문화전 <미시감각 : 문양의 집>에는 전통 문양으로 가득한 집이 등장한다. 우리의 하릴없는 일상이 펼쳐지는, 가장 가깝고도 편안한 공간. 전통이란 테마를 생각해 집은 분명히 한옥이라 예상했던 것은 편견이었을까? 현대인에게 익숙한 서구식 집이다. 리빙룸, 다이닝룸, 베드룸, 파우더룸, 라이브러리까지 갖춘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설고 새로운 공간. 흥미롭다. 이 전시의 총감독을 맡은 건축가 김이홍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적엔 목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실제로 목공 수업을 듣기도 했는데, 뭔가를 궁리해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물성이 있는 어떤 것으로 말이죠. 개념적인 것을 실제로 구축하는 일이 목공이고 건축이죠. 그 연결이 끊기지 않게 노력하고 있어요. 비교적 빨리 건축을 공부하겠다고 정했고, 지금까지 계속 그 목표를 향했습니다.”

그가 애장품으로 내놓은 것 역시, 직접 손으로 만든 건축 모형이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 시작해 실무 경력을 쌓았던 시기에 비로소 완성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작업. ‘미로’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시작해서 마무리한 결과물이라 더욱 애착이 간다고.

“그리스 신화 속 미노타우로스를 묘사한 피카소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동선이 쇠사슬처럼 얽혀 서로를 쫓는 듯한 미로를 표현했죠.”

중목표에 대한 오랜 정진에 보상은 당연히 따르는 것일까. 김이홍 건축가는 2018년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했다. 최근 김이홍아키텍츠를 개소하여 건축, 인테리어, 공공예술, 전시 디렉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

여하고 있다. 설화문화전은 2016년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의 ‘APMAP 2016’에 참여한 인연이 이어진 것.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실무를 익힌 그가 한국 전통에 대한 주제로 전시 기획을 해야 했을 때, 혹시 막연하거나 어렵지는 않았을까?

“맞아요. 제겐 처음 마주한 테마였고, 도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되어 있었으나, 그것을 건축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고민했죠. 건축이라는 3차원적인 세계에 전통 문양이라는 평면의 요소를 창의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숙제가 컸습니다. 다행히 뛰어난 동료들과의 협업으로 여러 모험을 해볼 수 있었지요.”

전시에서 의외적인 것을 풀어내고 싶었다는 그의 바람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패브릭, 유리 등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진 익숙한 현대적 집 위에 전통 문양이 얇게 흐르며 재현된다. 서양식으로 보이는 집 역시 구조는 한옥의 체계를 따른다. 현대와 전통, 동양과 서양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에게 녹아든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내내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고민했는데, 작업을 해나가면서 더욱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안의 문과 문을 통해 생겨나는 비침과 투과에서 생겨나는 깊이감이 무척 아름답더군요. 안과 바깥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중첩되는 것에서 발견한 가치가 어찌면 그 동안의 고민에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





스페이스 파플러 <밝은 빛들의 문>, 2019



오브라 아키텍츠 <영원한 봄>, 2019

시공간에 새겨 넣은, 미래라는 기억

<덕수궁-서울 야외 프로젝트 : 기억된 미래>

복잡한 시청각 거리를 지나 덕수궁 안으로 들어선다.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소란한 거리가 아득하게 멀어진다.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선 기분. 공궐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도 바깥 세계와 늘 그렇게 분리된다. 이 특별한 공간감은, 때론 예술적 모험을 부추기는 캔버스로 기능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와 국립현대미술관이 모여 궁리 해 펼치고 있는 <덕수궁-서울 야외 프로젝트 : 기억된 미래>는 2020년 4월 5일까지 계속되는 야외 전시다. '덕수궁 프로젝트'는 이미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궁궐 안에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기획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이에 문화재청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덕수궁 프로젝트'를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 전시가 그 첫 번째다. '기억된 미래'라니,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덕수궁-서울 야외 프로젝트 : 기억된 미래>는 우리를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데려간다. 먼저 덕수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짚어봐야겠다. 조선이 힘을 잃고 쇠락하던 시기, 고종은 조선의 연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올라 광무개혁(1897~1904)을 단행했다. 이 개혁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외부 열강 세력에 의지하지 않는 자주성을 지향하려는 황실의 의지였다. 고종은 이 시기에 덕수궁을 다시 짓고 동서양의 건축이 어우러지게 했다. 또한 독립문과 파고다공원을 건설하는 등, 조선이 아닌 근대적 도시 설계를 꿈꿨다. 여러 논쟁이

있지만, 그가 새로운 시대를 간절히 열망했음은 분명하다. 올해는 고종 황제 서거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되새기고자 근대기 역사적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었던 덕수궁을 무대로, 대한제국 시기 미래 도시를 열망하던 당대의 공기를 테마로 정해 현대 건축가들이 상상하고 재해석해 풀어냈다. 전시에는 아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대 건축가 스페이스 파플러, CL3, 뷰로 스펙타클러, OBBA, 오브라 아키텍츠 등 다섯 팀이 참여했다.

덕수궁에 들어서자 먼저 광명문 앞 커다란 LED 스크린이 눈에 들어온다. 광명문의 중앙 출입구를 액자 삼아 밝은 화면을 쏟아내는 '밝은 빛들의 문'이다. 스페이스 파플러(라라 레스메스, 프레드리크 헬베리)의 이 작품은 디지털 스크린의 시대 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묻는다. 아름다운 석재, 정교한 기둥, 화려한 처마로 대표되는 왕궁의 건축은 그 자체로 '공명정대한 통치'라는 이상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매체다. 일제강점기에 덕수궁이 그 지위를 잃었던 때부터 건축물은 현대적 건물로 바뀌어 더 이상 권력의 매체, 상징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권력이 중앙에



1 OBBA <대한연향>, 2019 2 뷰로 스펙타클러 <미래의 고고학자>, 2019 3 스페이스 파플러 <밝은 빛들의 문>, 2019

<덕수궁-서울 야외 프로젝트: 기억된 미래>

일시 2019년 9월 5일~2020년 4월 5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서 민중으로 이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과거 궁궐 건축이 가졌던 권위는 사라졌다. 지금의 매체는 건축물 자체가 아닌, 디지털 디바이스다. 스페이스 파플러는 이러한 변화를 담아 '밝은 빛들의 문'을 제작했다. 이 작품은 화려한 색감의 픽셀로 장식된 우리 시대의 '밝은 빛들의 문'을 옛 궁궐의 기능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광명문을 지나 함녕전으로 자리를 옮긴다. 함녕전은 황제의 침전으로 주로 쓰였고 고위 관원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 앞마당에서 홍콩의 가장 혁신적인 건축가로 손꼽히는 CL3(윌리엄 림)의 '전환기의 황제를 위한 가구'와 마주한다. CL3는 대한제국 시기가 중점과 전환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종은 스스로 왕에서 황제가 되었고, 쇄국의 길에서 개방의 행동을 택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황제가 어떤 가구를 사용했을까? 그를 위해 어떤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 건축가는 이런 가정을 통해 바퀴 달린 가구를 제작했다. 관람객은 이 가구에 직접 앉아 과거와 미래, 동서양이 교차하기 시작한 대한제국기의 과도기적 풍경을 상상할 수 있을 터이다.

덕수궁 중화전 앞에는 OBBA(곽상준, 이소정)가 만든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대한연향'이다. 1902년 중화장 앞마당에선 대한제국의 마지막 전통 연회 '연향'이 열렸다고 한다. '고종임인진연도 8폭병풍'에 기록되기도 한 이 연향에서는 황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고종의 의지가 드러난다. 이와 같은 국가 주요 의례를 치렀던 중화전 앞마당에 '대한연향'은 오색 반사 필름으로 바람과 빛에 반응하며 다채로운 그림을 만들고 있다. OBBA는 과거 연향에서 햇빛과 바람을 막아주는 가리개로 만인산과 천인산이 사용된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 만인산과 천인산이라는 가리개에서 사용자의 의도나 기능에 따라 공간이 창출되는 변화의 가능성을 포착하여, 오색 반사 필름을 재료로 작품을 제작한 것. 수많은 필름 조각들은 햇빛, 바람과 부딪혀 반사와 투과를 계속 반복하며 춤추듯 화려한 신비로운 색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연한 사고, 가치, 공간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석조전 앞 궁궐 내 최초의 서양식 정원에서 뷰로 스펙타클러(히메네즈 라이)의 '미래의 고고학자'가 서 있다. 건축가는 오랜 시간 먼지가 땅 위에 쌓여 과거를 발밑 아래 깊이 자리하게 하는 것에서 공중에 떠오른 미래의 이미지를 보았다. 시간이 지나 공중에 떠오른 미래의 지면에 맞춰 높은 플랫폼을 통하여, 다시 저 위의 공중을 발견한다. 계단을 오르면 관람객은 발 아래 2019년을 과거로 바라보게 된다. 즉 '미래의 고고학자' 계단을 오르는 것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특별한 여행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작품 위에 올라 궁궐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덕수궁-서울 야외 프로젝트: 기억된 미래>의 전시 공간은 덕수궁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미술관 마당, 두 곳이다. 오브라 아키텍츠(제니퍼 리, 파블로 카스트로)의 초대형 파빌리온 '영원한 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앞마당을 채우고 있다. 가을과 겨울에 걸친 전시 기간 동안 봄의 온도를 유지하는 파빌리온은 투명 반구체를 이용해 실내를 환하게 밝혔다. '영원한 봄'이라는 제목은 1919년 3.1운동과 1980년대 민주화 항쟁 등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투쟁을 가능케 했던 봄의 기후가 '프라하의 봄', '아랍의 봄' 등과 같이 세계 역사 안에서 동일한 시적 의미를 가진다는 데에서 착안했다. 또한 세계적 기후와 환경 데이터가 한눈에 들어오는 시각 장치를 설치해 전 지구적 이슈로 떠오르는 기후 변화 문제에 화두를 던진다.

덕수궁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 이르는, 그리고 1919년과 2019년을 오가는 경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고 미래를 모색하는 이번 전시는 '기억된 미래'라는 모순적 표현이 근사하게 어울린다. 미래는 분명히 오고야 말 오늘이고, 결국은 과거가 될 내일이다. 그 숙명적 순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향해야 할까? 궁궐이, 미술관이 던지는 거대한 물음이다. S

식탁 위에 피어난 은은한 정원

추위에 움츠러드는 겨울이지만 식탁에서만큼은 생동하는 기운을 느껴보자. 은은한 꽃무늬 그릇만으로 식탁에는 고운 꽃밭이 그려진다.

에디터 박효성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부로 드 콰르디아)



연꽃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모습을 고려청자의 재현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한 앙각연꽃접시는 이은범 작가 by 해브빈서울.



우리 주변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는 들꽃과 꽃을 접시에 담아낸 작품은 이꽃담 작가 by 포터리밍.



작가가 꽃잎을 그리고 잘라 제작한 꽃볼 면기 백자에 은은한 핑크색을 입혀 실용적이고 아름답다. 신동범세라믹스튜디오 by 서울번드.

도자기, 자수와 직물, 기와와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전통 문양을 새겨왔다. 그중에서도 꽃무늬와 식물무늬는 식기를 비롯한 생활도구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 다채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을 피워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 절개와 희망을 상징하고 난초는 자손 번창의 뜻을 담고 있다. 연꽃은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깨끗함과 고귀함을 상징하고 대나무는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그려졌다. 오늘날에도 꽃무늬 사랑은 여전하다. 유행을 잘 타지 않는 데다 클래식, 안티크, 동양적인 수목화 느낌 등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되어 그 사랑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최근에는 꽃의 형태와 색상을 단순화해 모던하게 표현하거나 손으로 그린 듯한 핸드 페인팅으로 크래프트 감성을 더한 그릇들이 인기다. 담는 음식에 따라 테이블 세팅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크고 화려한 꽃무늬라면 케이크나 과일 등의 디저트를 담고 테이블보나 냅킨은 무늬가 없는 것으로 매칭해 안정감을 전한다. 한식은 깨끗하고 깔끔한 색감의 그릇이 더 어울리므로 은은한 색상의 꽃 그림 디자인이 좋다. 보기만 해도 화사한 생기가 느껴지는 식탁 위에 행복의 맛 또한 피어난다. S



옛 그림 속에 핀 모란, 벚꽃, 민들레를 전통 기법 중 하나인 '박지' 기법을 사용해 입체적으로 도드라지게 그린 오벌 접시는 전하람 작가.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를 담아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광주요 BTS 홍매화 시리즈.



연꽃 그림을 따뜻한 느낌의 분청으로 그려 손맛이 느껴지는 오목한 형태의 접시는 허상욱 작가 by 슬루나리빙.



백자 위에 청화로 그린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광주요 화조문 시리즈 중 소리잔.



진한 코발트 블루 색상의 화려한 달리아 꽃그림을 '한 붓 그리기 기법'으로 표현한 '블룸스트 달리아 오벌 디시'는 로알코펜하겐.



들꽃과 꽃을 은은하고 소박하게 표현한 백자 컵은 이꽃담 작가 by 포터리밍.



붉은색 건칠과 나전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꽃 모양 구절판 접시는 권영진 작가 by 한국문화재단.



가장자리에 진짜 꽃잎을 엮어놓은 듯한 디자인의 화사한 접시는 트위그 by 알트729.



경쾌한 색감으로 식탁 위에 화사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꽃 접시는 구세나 작가.

작지만 위대한 예술 한 점

조형미를 입은 공예 주얼리는 단순히 장신구로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의상에 활력을 더할 뿐만 아니라 섬세한 작품을 소유하고 즐기는 뿌듯함이 더 크다.

에디터 박효성



폴리머 클레이, 석분점토 등을 활용해 버섯의 주름을 섬세하게 표현한 브로치 '서서히'는 김희양 작가.



황동으로 물결을 그리고, 아크릴 소재로 푸른 바다를 표현한 반지 '심연'은 신예진 작가.



도시 거리의 사물을 모티브로 한 시각적 패턴과 일정한 간격을 통해 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브로치는 고희승 작가.

의복을 단장하는 작은 조형물인 장신구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동행 하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장식적 기능은 기본이고 복을 불러오거나 화를 물리치는 부적의 역할도 했다. 신분과 권력, 재력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자 언약의 표식이기도 했다. 통일신라 왕실의 정교하고 화려한 금관과 장신구가 우리 민족의 뛰어난 금속 세공 기술을 보여주고, 몸 치장이 성행했던 고려시대에는 귀족들의 섬세한 금장 꾸미개로 금속 장신구가 신분의 상징으로 발달되어 왔음을 확인시켜준다. 단아하고 검박한 몸가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는 이전보다 장신구 착용이 줄고 세공 기술은 퇴보했지만 섬세한 심미안은 지금으로 이어져 공예 주얼리 작가들에 의해 색다른 방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제는 신분을 표출하기보다 개성을 드러내는 작은 공예 주얼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예술 작품이다. 장구한 세월을 이어온 장신구의 전통과 한국의 미는 물론 자연으로부터 얻은 영감과 경외를 담기도 한다. 기존의 금속과 원석 소재에 실리곤, 레진 등 생소한 소재를 접목해 현대적인 디자인과 위트를 더하기도 한다. 작가들이 풀어내는 수많은 이야기는 공예 주얼리가 되어 장신구의 기능을 넘어 작품으로서 매력을 발산한다. S



현실과 꿈의 구별되지 않는 몽환적인 감정을 적동, 진주, 아크릴, 로즈골드 도금 등의 다양한 소재로 표현한 '호접지몽'은 박민선 작가.



활짝 핀 꽃을 단순화해 모던하게 표현한 은 소재 팔찌는 'Blooming Collection' 시리즈 중 하나로 에필로 by KCDF 갤러리숍.



핑크색 작은 체인이 얽힌 소재를 3D 프린팅으로 출력해 가볍고 정교하게 표현하고, 손이 닿을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브로치 'The Motion'은 정령재 작가.



나비와 그리스 조각 파편들의 조화로 잃어버린 환상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브로치 작품 '파란그림자'는 김아람 작가.



반복되는 일상의 감정들을 기하학적 조각모음으로 표현하고 은, 체리나무, 호두나무를 재료로 사용한 '일상의 조각들' 브로치는 고윤서 작가.



콘크리트와 진주, 금박, 정은 등 다양한 소재를 접목해 화석을 표현한 반지는 김아람 작가.



상추잎과 토끼를 주제로 자연의 소중함을 동화적으로 구현한 칠보 공예 목걸이 '상추씨'는 박성숙 작가.



궁전의 전경을 유틸컬 구조로 표현하고 아코디언처럼 펼칠 수 있게 한 키네틱 구조의 브로치 'Royal Place'는 김수빈 작가.



정원에서 찾아낸 식물의 순간을 황동과 나무, 은 등의 복합 소재로 단아하게 구현한 브로치는 조민지 작가.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윤조 라인



윤조에센스
 ●윤조지향 ●침이지향 ●백화지향 ●홍서지향 ●흑여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설화수의 향으로 감성을 일깨우고,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와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하는 5가지 윤조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윤조에센스미스트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는 울퉁퉁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
 50ml | 40,000원대
 110ml | 70,000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망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에센셜 라인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퍼 발리고 밀끔하게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섬리안 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지산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 강화 크림
 75ml | 105,000원대

에센셜 퍼펙팅 라인



자음수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촉촉함을 선사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영양 에멀전
 125ml | 63,000원대

탄력영양크림
 자음영양단™과 맥문동 추출물이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이고 영양을 공급해 사계절 탄탄하고 윤곽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영양크림
 75ml | 110,000원대

수분영양크림
 메마른 피부에 강력한 수분과 풍부한 영양을 함께 전달해 딱 찬 보습으로 속깊까지 케어해주는 사계절용 수분영양크림
 50ml | 70,000원대

설린 라인



설린수
 메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비탄을 위한 설린 샴푸 베이스 스킨 캔디서너
 150ml | 75,000원대

설린에센스
 메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꿔주는 샴푸 베이스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설린이이크림
 메화의 향산화 에너지가 눈가 피부 피로에 의한 다크서클과 노화의 징후를 케어해 환한 눈기로 가꿔주는 샴푸 베이스 아이 크림
 20ml | 100,000원대

설린크림
 메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유해 요인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샴푸 베이스 크림
 50ml | 150,000원대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증상수™가 동일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비탄을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에센스
 농축된 인삼 에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나스피어™가 딱 찬 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50ml | 200,000원대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증상수™가 메마른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인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90,000원대

자음생아이에센스마스크
 인삼 인티에이징 결정체가 탄탄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안대형 디자인의 아이에센스마스크
 8매 | 75,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자음생페이셜오일
 귀한 인삼 총자유가 함유된 오일이 피부에 영양 윤기 장벽 케어를 선사하는 페이셜 오일
 20ml | 130,000원대

자음생크림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 장벽과 방어력을 키워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신트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불어 캡슐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크리미 시트 마스크
 5매 | 12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클렌징폼
 진한 거품이 거친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50ml | 60,000원대

진설수
 피부 생장력을 강화하는 적소에 함유된 인삼 에너지를 함유한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125,000원대

진설에센스
 강인한 적소에 진귀한 인삼 성분을 더해 탄력,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80,000원대 (리필 334,000원대)

진설유액
 피부 생장력을 강화하는 적소에 함유된 인삼 에너지를 함유한 인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14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소의 강인한 생장력과 골든아이케어마사지가 눈가 칙칙함과 부기를 케어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5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고농축 적소에 복원 성분을 더해 눈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고귀한 적소에 함유된 인삼 에너지를 함유한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470,000원대 (리필 413,000원대)

진설마스크
 강인한 적소의 생장력으로 다음 날 아침 더욱 맑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슬러징 마스크
 80ml | 20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이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팅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수
 지친 피부를 정돈해 주고 미백 효과를 끌어올리는 젤 타입 브라이팅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꿔주는 브라이팅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 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팩트리트먼트
 기미, 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름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산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팅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팅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토닝팩
 백상 성분을 담은 젤 포몰라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비탄을 가꿔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80ml | 6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인체와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자외선 유해환경 자막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방어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자자크 브라이팅 선크림
 30ml | 60,000원대
 50ml | 85,000원대

스페셜 라인



명의본초염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곽한 피부로 가꿔주는 8주 케어 인티에이징 염물
 8ml x 4 | 200,000원대

에빛크림
 빛, 열, 윤으로 6차 존을 밝혀 하루 종일 맑게 빛나는 가시적인 유해환경 자막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방어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자자크 브라이팅 선크림
 50ml + 20ml | 150,000원대
 튜브 20ml | 50,000원대

소산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인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탄력네크림
 자산체™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연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인티에이징 네크림
 60ml | 80,000원대

백옥 보석 마사주
 얼굴과 목, 바다까지 마사지를 해 리프팅 케어와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100% 백옥 소재 마사주(바다) 케어 경종
 240,000원대

진설명작 라인



진설명작에센스
 고귀한 영자버섯과 액티브인삼셀™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가 절정의 피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프레스티지 인티에이징 에센스
 40ml | 800,000원대

진설명작크림
 고귀한 영자버섯과 액티브인삼셀™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가 피부의 경이로운 생장력을 일깨우는 프레스티지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800,000원대

여은 라인



여은오일 5대지향 컬렉션
 ● 침이지향 ● 백화지향 ● 윤조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귀한 한방 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채워주고, 자연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설화수 5대지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트&리치 타입 페이스 오일
 20ml | 85,000원대 (라이트 ● ● ● 리치 ● ● ●)

옵션 라인



옥음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펄 오포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에움마사지크림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게 롤링되고 촉촉함과 활력을 동시에 선사하는 퍼밍 마사지 크림
 120ml | 55,000원대

어윤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설안팩
 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수면 팩
 80ml | 8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리키버리)
 병들 성분이 손상된 입술 표면을 촉촉하게 메워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모이스처)
 천국 당귀수, 대추 추출물이 매끈하고 윤기 있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클렌징 라인



중중비누
 홍삼잔액의 향산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40일 숙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
 100g x 2 | 45,000원대

순행클렌징워터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밀끔히 없애주는 촉촉한 저자극 수분 클렌징 워터
 200ml | 38,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신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없애주는 수분 탄력 클렌징 오일
 200ml | 42,000원대

순행클렌징폼
 수분을 가득 머금은 거품이 피부 노폐물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없애주는 미일스 리프팅 클렌징 폼
 200ml | 37,000원대

수울 라인



수울크림
 시원한 자자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트래를 키트 백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과 섬세한 텍스처가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 감각적인 바스 타임을 선사하는 럭셔리 트래를 키트(에어샤워, 헤어캔디서너 바디워시, 바디로션)
 50ml x 4 | 55,000원대

동백윤오일
 자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바디 & 헤어



핸드크림 5대지향 컬렉션
 ● 침린향 ● 백은향 ● 금윤향 ● 홍과향 ● 흑진향
 귀한 한방 오일이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트 & 리치 타입 핸드크림
 40ml | 30,000원대 (라이트 ● ● ● 리치 ● ● ●)

핸드워시 백은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몰라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은은한 메화 향이 기분들 맑게 해주는 핸드워시
 300ml | 36,000원대

바디로션 백은향
 메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미일스한 젤 포몰라가 피부에 보습과 탄력, 윤기를 선사하는 바디로션
 250ml | 60,000원대

바디워시 백은향
 메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미일스한 젤 포몰라가 피부에 촉촉함을 남기는 바디워시
 250ml | 40,000원대

<p>메이크업밸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라이트 핑크 2호 라이트 퍼플 3호 라이트 그린  <p>메이크업밸런서(SPF 34 PA++) 피부 결과 피부 톤으로 불균형하는 메이크업 밸런서</p> <p>35ml 65,000원대</p>	<p>C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어 베이지  <p>CC유액(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 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p> <p>35ml 60,000원대</p>	<p>컨실러 스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미디어 핑크 2호 미디어 베이지  <p>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장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p> <p>5g 40,000원대</p>	<p>쿠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호 포슬린(핑크) 15호 아이보리(핑크) 17호 아이보리(베이지) 21호 내추럴(핑크) 23호 내추럴(베이지) 25호 샌드(핑크) 27호 샌드(베이지) 31호 하니(핑크) 33호 하니(베이지) 37호 캄베(베이지)  <p>퍼펙팅 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가볍고 미세한 커버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버 윤기 쿠션</p> <p>15g×2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p>	<p>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SPF 50+ / PA+++)</p> <p>진주빛 광채로 맑고 화사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자정미백 쿠션</p> <p>14g×2 68,000원대</p>	<p>퍼펙팅 쿠션 인텐스 (SPF 50+ / PA+++)</p> <p>질고 건조한 동안 빛을 위한 안티에이징 쿠션</p> <p>15g×2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p>	<p>피니시 파우더</p> <p>○ 1호 소프트 화이트</p>  <p>파우더 포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세팅되어 빙글 메이크업한 듯한 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피니시 파우더</p> <p>8g 65,000원대</p>	<p>에서 메이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p>에서 파운데이션(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p> <p>30ml 55,000원대</p>	<p>에서 파운데이션(크림) (SPF 20 / PA++)</p> <p>영양 크림을 바른 듯 매끄럽게 커버해주는 크림 파운데이션</p> <p>30ml 55,000원대</p>	<p>에서 스킨케어(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p> <p>14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p>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p> <p>답답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p> <p>11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p>에서 파우더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꿔주는 파우더</p> <p>20g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p>
--	---	--	---	---	--	--	--	--	---	---	--

<p>자정 메이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화사한 색 2호 자연스러운 색  <p>자정 에센스BB(SPF 50+ / PA+++) 하루 종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BB</p> <p>30ml 60,000원대</p>	<p>자정 미백UV팩트(SPF 50+ / PA+++) 자외선과 유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브라이트닝 팩트</p> <p>9g 60,000원대(리필 45,000원대)</p>	<p>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 25 / PA++)</p> <p>쉬어 하이드라 포클러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파운데이션</p> <p>30ml 58,000원대</p>	<p>진설 윤메이크업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p> <p>30ml 90,000원대</p>	<p>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25 / PA++)</p> <p>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p> <p>30ml 90,000원대</p>	<p>진설 윤팩트 영을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p> <p>13.5g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p>	<p>아이브로우 퍼펙터 부드러운 발색으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오토렌탈</p> <p>0.3g 20,000원대 (리필 14,000원대)</p>	<p>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애플리콧 세럼 2호 블라썸 세럼 3호 플라워 핑크 4호 로즈 레드 5호 블라썸 코랄 7호 딥 베리 9호 글로우 오렌지 10호 비비드 핑크 11호 레드인드 레드 12호 소프트 오렌지 38호 사들 핑크 59호 어텀 레드  <p>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충력으로 생기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꾸주는 데일리 립 케어</p> <p>3g 40,000원대</p>	<p>래디언스 블러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핑크 하모니 2호 코랄 하모니  <p>래디언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핏색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p> <p>10g 60,000원대</p>	<p>2020 스프링 리미티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호 아이보리(핑크) 21호 내추럴(핑크) 23호 내추럴(베이지) 15호 아이보리(베이지) 21호 내추럴(베이지) 23호 내추럴(베이지) 4호 로즈 레드 5호 블라썸 코랄  <p>퍼펙팅 쿠션 Antoinette Poisson이 재해석한 한국 전통 문양을 섬세한 자수로 표현한 디자인의 한정판 퍼펙팅 쿠션</p> <p>15g×2 65,000원대</p>	<p>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Antoinette Poisson이 재해석한 한국 전통 문양을 섬세한 자수로 표현한 디자인의 한정판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p> <p>14g×2 68,000원대</p>	<p>설린에센스 Antoinette Poisson이 재해석한 한국 전통 문양을 패키지에 적용한 한정판 설린 에센스</p> <p>50ml 140,000원대</p>	<p>설린아이크림 기획세트 Antoinette Poisson이 재해석한 한국 전통 문양을 패키지에 적용한 한정판 설린아이크림 기획세트</p> <p>20ml 100,000원대</p>	<p>에센셜 립세럼 스틱 Antoinette Poisson이 재해석한 한국 전통 문양을 패키지에 적용한 한정판 립세럼 스틱</p> <p>3g 40,000원대</p>
---	--	---	--	---	--	--	--	--	--	---	--	---	--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p>윤조에센스 랜턴컬렉션 자율단아 피부 윤기를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첫 단계 에센스</p> <p>60ml 90,000원대 120ml 150,000원대</p>	<p>자음수 랜턴컬렉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젤 타입 스킨</p> <p>125ml 57,000원대</p>	<p>자음유액 랜턴컬렉션 매끄럽게 발리고 알코올이 흡수되어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소프트 로션</p> <p>125ml 63,000원대</p>	<p>자음생크림 랜턴컬렉션 인상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p> <p>60ml 250,000원대</p>	<p>자음생크림 라이트 랜턴컬렉션 인상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p> <p>60ml 250,000원대</p>	<p>매화지향 향유 백매화의 생명력을 담은 은은한 향으로 자진 피부와 마음에 에너지를 선사하는 오일 타입의 향수</p> <p>30ml 130,000원대</p>	<p>윤조지향 향수 스프레이 나무의 따뜻함을 남기는 동양적인 우디 계열의 기쁨 있는 향이 담긴 향수 스프레이</p> <p>15ml×2ea 120,000원대</p>	<p>매화지향 향수 스프레이 백매화의 생명력과 고귀함을 담은 향이 담긴 휴대가 간편한 향수 스프레이</p> <p>15ml×2ea 120,000원대</p>	<p>윤조지향 향초 나무의 따뜻함으로 내만의 감성을 깨우는 기쁨 있는 향의 소이왁스 향초</p> <p>200g 100,000원대</p>	<p>매화지향 향초 백매화의 고귀한 향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선사하는 소이왁스 향초</p> <p>200g 100,000원대</p>	<p>공중비누 - 소나무 청량한 소나무 향이 마음과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공중비누 - 홍삼 깊은 한방 향이 활력을 선사하며 향신료 효능의 홍삼전액을 함유한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공중비누 - 살구 싱그러운 살구 향이 기분을 전환시켜주며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공중비누 - 매화 백매화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며 깨끗하고 청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	--	---	--	--	---	---	--	--	--	--	---	--	---

<p>에센셜 밤 비디부터 헤아리지 설하수의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멀티 보습 밤</p> <p>10g 40,000원대</p>	<p>립 틴트 밤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가꾸주는 보습 립 틴트 밤</p> <p>10g 40,000원대</p>	<p>홍삼발효차 재주 삼나무의 숙성한 후 발효차에 귀한 홍삼을 블렌딩한 발효차</p> <p>1.5g×10ea 25,000원대</p>	<p>매화차 눈 속에서 피어나 봄의 희망을 전하는 청초하고 우아한 매화를 담은 매화 허브차</p> <p>1g×10ea 25,000원대</p>	<p>세작 곡우 찹기에 제주 차밭에서 채집된 어린 찻잎을 담은 전통 작살차</p> <p>1.5g×10ea 15,000원대</p>	<p>삼다면 제주영글 재주 삼나무의 숙성한 후 발효차에 제주 영글을 더한 블렌딩 티</p> <p>1.8g×10ea 20,000원대</p>	<p>MEN</p> <p>리프레싱클렌징폼 자연 유래 파우더 성분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폼</p> <p>150ml 30,000원대</p>	<p>분운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디에이징 에센스</p> <p>140ml 73,000원대</p>	<p>분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인디에이징 로션</p> <p>90ml 52,000원대</p>	<p>분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 오일 성분의 고보습 인디에이징 크림</p> <p>40ml 90,000원대</p>	<p>릴렉싱 UV 프로텍터(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p> <p>50ml 40,000원대</p>	<p>홀리스틱 케어</p> <p>에센셜 홍삼이 혈행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마시는 홍삼 연골</p> <p>20g×30 170,000원대</p>
--	---	--	---	--	---	---	---	---	--	---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진설명작크림(1명)

고귀한 영자버섯과 액티브인삼셀™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가 피부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일깨우는 프레스티지 안티에이징 크림입니다. 노화의 흔적들을 케어해 탄탄하고 힘 있는 건강한 피부를 완성합니다.



설린아이크림(5명)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가 눈가 피부를 보호하는 생기 탄력 아이 젤 크림입니다. 다크서클과 노화의 징후를 케어해 환한 눈가로 가꾸어주고, 자막 아이 마사지와 함께 사용하면 눈가 피부의 미세순환을 도와줍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20년 3월 10일까지
- 증정 선물 진설명작크림, 설린아이크림
- 당첨자 발표 2020년 봄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9년 가을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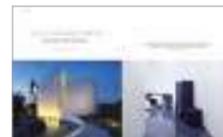
자음생에센스(5명)

- 강구권 대구시 달서구 도원로
- 김승욱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 이은심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 정영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 조혜령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자음생크림(5명)

- 공신영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 남승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 조소영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 한선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 한진숙 인천시 연수구 독배로

READER'S REVIEW



우주와 나, 그 접점을 발견하는 특별한 자리

울릉도에 이렇게 훌륭한 곳이 있다는 것을 <설화수> 덕분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같은 곳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주세요. - 남승현(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순간마다 정유정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정유정 작가가 "힘들지만 사는 게 옳은 것이라는 것 견디거나 버티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는 게 옳다는 것"라고 한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 조소영(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019년 가을호 당첨자 선물은 1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7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현대백화점 가든파이브점 02-2673-2133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032-430-1479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키타েস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6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6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5.07.01~2024.09.0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40861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설화지혜(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피부 섬기기(1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新 장인을 만나다(1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공간미감(2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진너다(2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어우러지다(4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풍경(5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보감(5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아름다운 기행(6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한국의 멋(8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애장(8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읽다(8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집 안 단장(9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몹 단장(9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진설명작크림 설린아이크림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겨울호 <Sulwhasoo>의 업서 응모 마감은 3월 10일입니다.

-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엘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경주점	043-219-9219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02-2669-6730
롯데 명동 면세점	02-759-6662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02-3213-3865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65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신라 장충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부띠끄	032-743-2151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032-743-2168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신라 제주공항 면세점	064-720-0055
HDC 신라 울산 면세점	02-490-3351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10
신세계 강남 면세점	02-6288-0767
신세계 센텀 면세점	051-775-3141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84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탑승동	032-743-5784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18
에스엠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1570
에스엠 인사 면세점	02-2120-6210,9
그랜드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0543
두타 동대문 면세점	02-3399-9236
동화 광화문 면세점	02-399-3123
한화 여의도 면세점	02-2136-2779
현대 무역센터 면세점	02-2142-6220
JTO 중문 면세점	064-766-9019

